

선교적 교회를 위한 교육목회모델  
:세광교회 복음 세우기 운동 사례연구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김현준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1년 5월

Copyright © 2021 Hyunjoon Kim

All rights reserved.

## ABSTRACT

### **A Model of Teaching Ministry for Missional Church**

: A Case Study of Building the Gospel Project at Sekwang Church in Ilsan, Korea

Hyunjoon Kim

Sekwang Church, Ilsan, Korea

The purpose of the project is to restore the health and beauty of the church by careful study of the missional church from a biblical as well as a situational perspective and the examination of the case of Sekwang Church which has been able to make a concrete and practical application to its educational ministry.

What is the purpose of the church? It would not be wrong to say that the church exists to save souls and to carry out God's mission. God is *Mission Dei*, the God of missions. It is easy to think that mission is something we must manage but that is not actually the case. God is the principal agent who leads mission. The church and Christians must cooperate and commit to achieve God's kingdom. This ministry cannot be accomplished by one's own strength and ability. The church must unite as one and remember that mission is the greatest calling for which all are required to work together and strive to fulfill this God-given calling.

The church and Christians who look toward God's kingdom have the calling to be the salt and light in this world. Examining the region and periphery from God's kingdom perspective and working together to Building the Gospel is very important. The church must carefully scrutinize the surroundings to actively support struggling churches, local communities, educational facilities, overseas mission fields and the like in order to Building the Gospel. To that end, lay people-centered ministry is absolutely required. When Christians cooperate and collaborate together with God's kingdom perspective and become one with Christ, they will be able to achieve healthy, beautiful and well-balanced missions.

This project introduces the direction and concrete process of the beautiful church, the healthy church, the vitality of Christ filled church that transforms the world and saves souls. The beautiful fruits of mission of the present age church and Christians who seek and desire to expand God's kingdom by serving the region as salt and light will be made evident.

국문초록

**선교적 교회를 위한 교육목회모델**  
:세광교회 복음 세우기 운동 사례연구

김현준

세광교회, 일산, 한국

본 연구의 목적은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지를 성경적이고 시대 상황적인 관점에서 고찰해보고 이를 교육목회의 차원으로 적용한 세광교회 사례를 통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적용들을 살펴봄으로써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데 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Missio Dei)이시다. 선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아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이끄신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연합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한다. 이러한 사역은 혼자만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회 전체가 하나되어 하나님께 주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며 이루어가야 하는 지상 최고의 사명임을 기억하며 실천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지역과 주변을 살펴보고 함께 연합하여 복음을 세워가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주어진 환경을 살펴보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 지역사회, 교육시설, 해외 선교지 등을 적극적으로 돌보며 복음을 세워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신도 중심의 사역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 나갈 때 건강하고 아름답고 균형 잡힌 선교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구체적인 과정을 소개한 것이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바라고 원하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선교적 결실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 목 차

감사의 글 .....	xii
표 목차 .....	ix
그림 목차 .....	xi
I. 서론 .....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
연구의 방법과 범위 .....	5
II. 선교적 교회의 이해 .....	7
선교적 교회의 정의 .....	7
성경적 관점의 선교적 교회 .....	24
신학적 관점의 선교적 교회 .....	28
III. 선교적 교육목회의 이해 .....	34
선교적 교육목회의 정의 .....	34
선교적 교육목회의 구성 .....	45
선교적 교육목회의 특징 .....	65
IV. 교육목회를 통한 선교적 교회의 사례연구: 세광 교회 중심으로 .....	68
복음 세우기 운동의 기획 목적 .....	69
지원 대상 선정 .....	70
세광 교회 장년교구 복음세우기 사례 .....	72
V. 세광 교회 복음세우기 운동 연구 평가 .....	128
복음세우기 운동 참여자 심층 인터뷰 .....	128
결과분석 .....	135

필자의 평가 .....	137
당회원의 평가 .....	140
성도들의 평가 .....	141
VI. 결론 .....	143
참고문헌 .....	151

## 표 목차

<표1> 하나님의 선교와 우리의 선교 연관성 .....	14
<표2> 교회2.0과 교회 3.0 비교 .....	19
<표3> 선교적 교회와 제도적 교회 비교 .....	26
<표4> 교육목회의 교육구조 .....	44
<표5> 하나님 나라와 신앙표현 영역 .....	45
<표6> 신약성서의 케리그마적 동질성 .....	58
<표7>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 교회 .....	66
<표8> 다음세대 복음세우기 신앙생활의 유익 .....	127

## 그림 목차

<그림1>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 .....	30
<그림2> 1교구-해외 선교지(필리핀 분토드 교회) .....	72
<그림3> 필리핀 분토드 교회 위치 .....	75
<그림4> 필리핀 분토드 교회 모습 .....	76
<그림5> 1교구 연합구역예배 및 기도회 .....	78
<그림6> 협력 선교사 초청예배 .....	79
<그림7> 사랑의 물품 후원사업 .....	80
<그림8> 필리핀 분토드 교회 성전건축 .....	82
<그림9> 헌당예배 사진 .....	83
<그림10> 헌당예배 설교 .....	84
<그림11> 복음세우기 교회선정 구역장 회의 .....	87
<그림12> 25사단 72연대 3대대 승리 교회 초청예배 .....	89
<그림13> 25사단 72연대 3대대 승리 교회 장병 특송 .....	89
<그림14> 25사단 72연대 3대대 승리 교회 단체사진 .....	90
<그림15> 짜장면데이 행사 사진 .....	91
<그림16> 장병 위문예배 사진 .....	95
<그림17> 장병 위문예배 특송, 전체사진 .....	96
<그림18> 영적 지도자(Focusing)훈련 세미나 .....	100
<그림19> 기독교 대안학교 “허브스쿨” 청소년 심리 특강 .....	103
<그림20> 하늘사다리 교회와 교인들 .....	107

<그림21> 재능기부 지원 .....	108
<그림22> 문화센터 플랏 교실 .....	108
<그림23> 문화센터 문화교실 전시회 .....	109
<그림24> 전도대 파송 .....	111
<그림25> 4교구 초청 연합예배 .....	114
<그림26> 기부 앤 레이스 로고 .....	120
<그림27> 감사의 글 .....	121
<그림28> 기부 앤 레이스 사역사진 .....	122

## 감사의 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메마른 땅에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부족한 저를 목사로 불러주시고 학문은 연구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성도는 그분의 지체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배움의 터전을 허락하셔서 연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우신 아버지와 어머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평생 주님 한분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그 삶을 옆에서 지켜보며 신앙의 여정을 삶으로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박사의 가운을 입혀 드리고 싶습니다.

온화한 마음과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때마다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 인생의 소울 메이트,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행하며 동역하는 사랑하는 아내 김유정사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랑하는 아들 김지훈, 딸 김지우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신 세광교회 황해국 목사님, 학문을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신 동역자 목사님,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채워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던 분들과 수 많은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도움의 손길들을 기억하며 다시한번 감사를 올립니다.

2021년 2월

김현준

## 제 I 장

### 서 론

#### 문제 제기 및 연구의 목적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는 목회자들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일 것이다.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늘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보기도 하고 새로운 이론을 연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들은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으로는 양적 성장의 둔화와 신앙적 순수성의 쇠퇴가 시작되었다. 밖으로는 안티 기독교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으로 교회는 세속화라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우리 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종교를 거부하는 사회로 치닫고 있다. 한국갤럽의 자료를 한겨레일보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30세대의 종교 이탈 등에 따라 10년 전에 비해 전체적으로 종교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54%에서 40%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주목할 해야 할 사항은 다음세대의 이탈현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사회변화에 민감한 젊은 세대는 종교적인 가치보다 세속적인 가치를 우선하며 이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교회학교는 급격한 감소의 위기에 빠져 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인구감소와 저 출산이 주요 원인일 것이다. 사실 저 출산의 문제는 하루 아침에 발생한 문제는 아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기 원하는 비혼 주의자,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무자녀 부부를 종종 발견한다. 이제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의 현상을 경험하며 그 위기를 몸으로 느끼고 있다. 교단을 막론하고 다음세대 출석 인원은 감소하고 있다. 이미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50%를 넘었다고 한다.

A교회의 상황을 보면 단면적인 위기 상황을 공감할 수 있다. 필자는 A교회 교사 강습회에서 고등부 부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성인 2000명, 출석하는 A교회의 교회학교 학생 수가 예전만 못하다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10년 후 교회의 모습은 어떨지 심히 고민한다고 말하였다. 성인 세례 교인의 수와 비교해 볼 때 교회학교가 현저하게 무너진 현상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다. "10년 전만 해도 중, 고등부 학생들이 10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의 현저하게 줄어 20-25명이 출석한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는 한 교회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형섭에 따르면 "한국교회 다음세대 특별히 청소년의 비율이 3.8%" 라고 말하며 이 수치는 선교 대상국 수준이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교회학교는 교회의 미래이며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우리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요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위기다! 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종종 들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모습과 현상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필자는 매년 총회, 노회, 지 교회, 교사 강습회를 인도해 왔다. 최근 3년간 교사강습회의 특징을 찾아본다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는

교회의 다음 세대가 급속도로 무너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농, 어촌 지역의 교회의 목회자들은 교회의 젊은 청년과 학생들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한다. 젊은 세대들은 도시로 직장을 위해 학업을 위해 떠나고 있는 현실이라며 교회의 생존 문제를 두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농, 어촌 교회의 문제만이 아닐 것이다. 도시 교회도 다양한 이유와 상황으로 어려움은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윤식의 견해를 정리하자면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은 저 출산, 고령화 시대의 상황적 어려움보다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교회의 어려움은 복음의 본질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며, 도덕적인 타락, 공적 복음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들이 있다.<sup>1</sup> 이러한 내용은 교회의 나타나는 현상을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교회는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종교로 인식되고 있다. 교회를 다니는 젊은 직장인들은 스스로 직장생활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실을 숨긴다고 한다. 이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면한 원인과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지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처한 위기는 외부적인 요인도 물론 있지만, 내부에서 스스로 만든 요인이 크다. 서구의 교회들처럼 신학의 변질되거나 신앙의 영성이 무너지기 보다는 우리가 처한 위기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개신교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교회의 목회자들의 도덕적 실패가 자초한 위기를 만들었다. 이러한 진단에 근거하여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한국교회의 상황은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다.

---

<sup>1</sup> 최윤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2*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5), 11-12.

과거를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믿음의 선조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났다. 한국교회는 짧은 기간 폭발적으로 성장한 특징이 있는 교회이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생길 정도로 한국교회는 전 세계적인 이슈였다.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교회로 성장하였다. 지원을 받는 교회에서 지원하는 교회로 그 영역을 넓혔다. 그뿐 아니라 한국교회는 민족의 동반자로 그 길을 걸어왔다. 3.1운동은 한국교회의 성향과 사명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3.1운동은 민중의 운동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민족과 세계의 평화를 위한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나서 약 1년간 총 1만 5천회의 만세 시위와 연인원 1천명이 참가하였다. 이 운동은 근대사에서 민족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우리의 자부심과 우리의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낸 너무나도 아프고 자랑스러운 사건이다. 특히, 민족대표 33명중 16명이 기독교 성직자나 기독교인이라는 점에서 한국교회가 주도적으로 3.1 운동을 전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교회는 민족의 희망이며 동반자의 역할을 감당해왔다.

위르겐 몰트만(Jurgen Molmann)은 “하나님의 중간 이름은 미래” 라고 말했다. 즉 하나님은 미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미래에서 우리를 불러 앞으로 따라오게 하신다는 뜻이다. “미래는 하나님의 본질적 본성이다.”<sup>2</sup> 라고 말한다.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며 빛으로 나아가 듯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참으로 건강한 교회를 바라보며 변해야 한다. 포도주는 변할 수 없는 본질이다.

---

<sup>2</sup> Jurgen Moltmann, *A Theology of Hope* (New York: Harper & Row, 1967), 16.

그러나 포도주를 담은 포도주 가죽부대는 그 시대와 문화에 맞게 변화하는 것이 용기이며 지혜이다.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은 “세상을 변화를 이끄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sup>3</sup> 라고 설명한다. 오늘날과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론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된다.

본 논문은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회복하고 위기에서 살려내며, 선한 영향력으로 지역교회를 섬기며 생명력이 가득한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필자는 이를 위해서 ‘선교적 교회론(Missional Church)’을 대한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선교적 교회론은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교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력이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존재 목적이 흔들리게 되며 오랜 기간 존재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기에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교회,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위해 선교적 교회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 연구의 방법과 연구 범위

본 논문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교적 교회를 위한 교육목회”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신학적이고 상황적인 관점은 주로 연구서적과 논문, 저널 자료들

---

<sup>3</sup> Leonard Sweet, *미래 크리스천*, 김영래 역 (서울: 좋은 씨앗, 2007), 41.

을 참고하였다. 선교적 교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와 대안적 제안은 기존의 문  
서자료들 외에 사역 현장에서의 경험들을 통해 다루었다.

먼저 II장에서는 선교적 교회의 이해를 다루게 된다. 여기서는 선교적 교회  
론의 배경, 개념과 정의, 특징, 성경적 관점, 신학적 관점을 살펴보며 선교적 교회  
의 전반적인 살펴보고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한다.

III장에서는 선교적 교육목회의 이론을 다루게 된다. 특별히 마리아 헤리스,  
레너드 스위트, 찰스 크래프트를 중심으로 한 선교적 교육목회의 커리큘럼을 소개한  
다. 그리고 교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인 토대를 설명한다.

IV장에서는 선교적 교회론의 이론을 바탕으로 교회의 실제적인 변화를 어떻  
게 가져왔는지 "복음 세우기 운동"을 소개하며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건강한 교  
회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인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교회의 변화해야 할  
부분과 내용을 살펴본다.

V장에서는 IV장에서 목회현장에 적용한 선교적 교회를 위한 복음 세우기 운  
동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평가를 실행한다.

VI장에서는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배운 점을 설명하며 연구의 범위와 제  
언을 기록함으로 논문을 마치게 된다.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위한 복음 세우기 운동은 예배, 말씀과 전도,  
교육, 교제와 나눔, 봉사와 섬김 등의 다양한 사역에 응용할 수 있다. 세광교회 복  
음 세우기 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변화 연구에 중심을 두었다. 이는 선교적 교회로의  
변화의 유익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기 때문이다.

## 제 II 장

### 선교적 교회의 이해

#### 선교적 교회의 정의

선교적(Missional)이라는 언어는 레슬리 뉴비긴의 신학연구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후 1990년 중반에 북미에서 형성된 GOCN(The 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의 창설과 GOCN이 주최하고 이끈 여러 신학적 토론회와 대회가 열렸다. 이 때 논의되었던 내용을 선별하여 편집한 책인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의 출간과 함께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대럴 구더(Darell. L. Guder)는 선교가 있는 교회(Church With Mission)를 지향하기 보다는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로 변화해야 한다고 설명한다.<sup>4</sup>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전환 되어야 한다. 교회의 방향성과 목적은 선교에 있다는 사실을 전제해야 한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성도는 몸 된 교회의 지체로 함께 연합하여 섬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연합과 일치로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주는 공

---

<sup>4</sup> Darell. L. Guder, *선교적 교회론*, 정승현 역 (인천: 주안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13), 32.

동체가 되어야 한다.

선교는 단순히 교회의 일부분으로 선교의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을 넘어야 한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를 위해 존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회의 방향은 선교를 돕는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체질을 변화하여야 한다. 영국 선교사 가운데 오랫동안 선교지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노 선교사 있다. 그에게 영국은 마치 거대한 또 다른 선교지로 보였다.

한편, 이러한 변화가 모여져 오늘날 복미를 중심으로 새로운 종류의 교회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선교적 교회 운동이라고 불린다. 전통을 부정하거나 혹은 대치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감소되고 교회 성도의 수가 줄어드는 현상속에서 목회자들은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고 고민하며 연구하게 되었다. 한국교회에서도 이러한 고민과 연구를 하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선교적 교회는 건강한 교회, 지역을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의 회복과 역할을 충실히 섬길 수 있는 건강한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선교적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선교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 선교란 라틴어 mitto(‘보내다’는 뜻)에서 나온 단어이다. 선교는(missions) 전 세계에서 모든 백성을 추수하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낸다(sending)는 의미로 5백년간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특히 세계복음화, 즉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이해 가운데 교회는 선교를 다양한 사역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교회의 여유가 있으면 선교를 하는 태도로 비취지는 교회도 나타나게 되었다.

기독교 왕국을 주장하는 교회의 관점에서 선교는 교회의 수 많은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였다. 오늘날 교회의 교회론은 교회의 선교적 사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선교를 신학적인 학문에서 소외하거나 실천신학의 한 영역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신 주의 백성이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즉 선교적 교회는 성서적이고 역사적이며, 상황적이며 실천적이다.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과 활동으로 현존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표적이 되어야 한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에 부분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으로 표시되는 교회의 실재성에 대한 이해이어야 한다. 교회의 선교는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이해되고 정의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그 창조의 대리자이다.<sup>5</sup>

마태복음의 두 본문이 선교의 핵심을 잘 보여준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37-38절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다.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 전 세계에서 추수하기 위해 일꾼을 보낸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8-20절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내용이다. "지상명령"이라 불리는 대규모 소집명령이다. 여기서 예수님의 주된 명령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는 "가서"(보냄 받다)라는 요구 뒤에 따라온다. 보내고 가

---

<sup>5</sup> Edward R. Dayton, David A. Fraser *세계선교의 이론과 전략*, 박선회, 외 2인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97-98.

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예수님과 그분이 세우신 교회는 보내고, “보내진 자들” 혹은 “선교사들”을 파송한다. 따라서 선교는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면 복음을 듣지 못했을 사람들 속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sup>6</sup> 선교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동시에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신다.

진리의 탐구에는 언제나 출발점이 있다. 시간적 출발점도 있고 내용을 만한 가정도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진리 자체에 관한 하나의 전제에서 출발한다. 진리와 하나님은 서로 떨어져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이다. 이처럼 진리란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진리는 서로 같은 것이므로, 진리가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거꾸로, 관계와 무관하게 단독으로 떨어져 존재하는 진리란 없다. 다르게 표현하면, 삶 다운 삶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뿐이다. 인간됨의 본질은 우리의 자유 의지나 합리성이 아니다. 인간됨의 본질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이다. 그것이 진리이다.<sup>7</sup>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때 우리는 참된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다.

칼 하르텐슈타인(Karl Hartenstein)에 견해를 정리하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

<sup>6</sup> John Piper, *하나님의 선교를 열망하라*, 이선숙 역 (서울: 좋은 씨앗, 2013), 31-32.

<sup>7</sup> Leonard Sweet, *관계의 영성*, 윤종석 역(서울: IVP, 2007), 82-83.

말은 칼 바르트의 내용을 요약하기 위해 그 말을 만들어 냈다고 한다.<sup>8</sup> 바르트는 1928년에 선교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선교를 삼위일체 교리와 연결시켰다. 하르텐슈타인과 칼 바르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삼위일체적 활동으로 선교하고 이끌고 계시는 주체가 되신다고 말한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교에 반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선교의 의미는 '하나님의 보내심'이라고 말한다. 성부가 성자를 보내시고 그분들이 성령을 보내신다는 의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인간의 선교는 하나님의 보내심에 연합하고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칼 바르트의 선교적 내용을 살펴볼 때 교회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보내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교회는 자신의 선교적 사명을 스스로 정의하지 않는다. 교회를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다.

옥스퍼드 대학교 가톨릭역사가인 아드리안 헤리스팅스(Adrian Hastings)는 "교회는 그 선교적 사명의 종이 되어야 한다. 선교적 사명은 결과적으로 교회의 본질을 정하며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이루지 못한다면 교회가 되는데 실패한 것이다."<sup>9</sup>고 설명한다. 즉, 선교의 목적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라는 말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구원을 목적으로, 선교적 사명에 위한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이 교회이다. 이런 면에서 선교와 교회는 상호 관계 속에서 있으며 상호보완적이다.

선교와 교회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선교적임을 드러내

---

<sup>8</sup> Christopher J. H. Wright, *하나님의 선교*, 정옥배 역 (서울: IVP, 2010), 74-75.

<sup>9</sup> Leonard Sweet, *미래 크리스천*, 41-42.

는 것이다. 선교는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을 넘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이미 세상과 화해하신 사건을 순종함으로 실현해 가는 실천적인 행동이다.

선교적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초점을 둔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적 도구이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때,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될 수 없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교에 교회는 협력하고 함께 행하는 것이다.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교회가 주체가 되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 온세상의 창조주 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교회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며 교회와 세상을 주관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교적 교회의 중심이다. 하나님을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주요한 영감을 주며 우리 삶의 목적이기도 하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그 거룩한 사명을 교회는 나눈다. 교회의 생활과 활동은 기도로 지원한다.<sup>10</sup>

칼 바르트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말한다. “하나님은 자신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다”.<sup>11</sup>고 설명한다. 그는 이러한 표현들과 함께 아직까지도 이 표현들은

---

<sup>10</sup> 잉글랜드성공회 선교와 사회문제 위원회, *선교형 교회*, 브랜든선교연구소 역 (서울: 비아, 2016), 168.

<sup>11</sup> Alister E. McGrath, *역사 속의 신학*, 김홍기 외 3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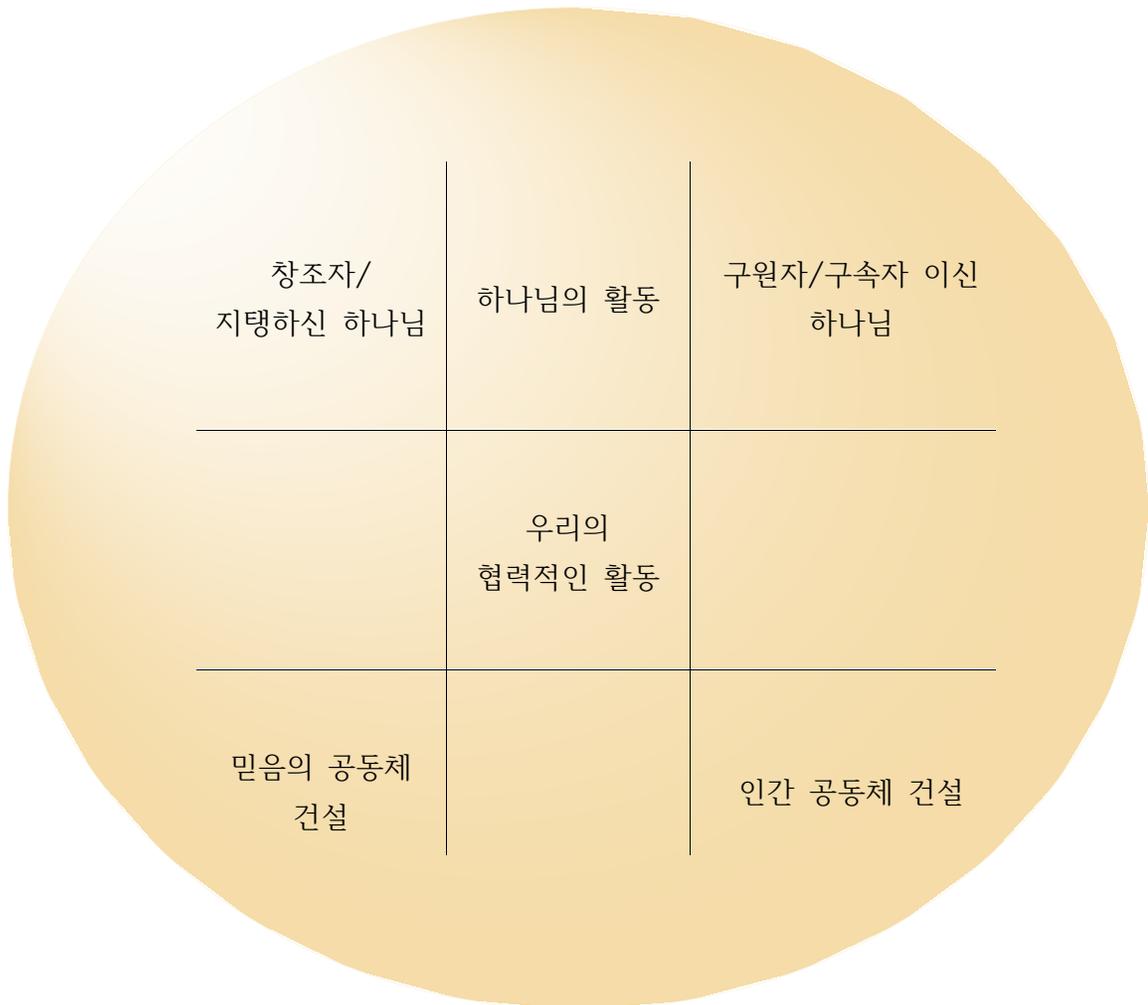
누구나 이해하기가 쉬운 언어로 번역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며, 삼위일체론의 공식을 이끌어 내는 계시의 골격을 세웠다. 하나님은 계시 안에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 계시가 전체하고 암시하는 것에 관해 묻는 것이 신학의 임무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 안에서의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에 관하여 조심스럽게 질문해야만 한다.

뉴비긴(Lesslie Newbigin)은 “성자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자의 삶을 나누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구현하는 사역을 하신 분이다.”<sup>12</sup>라고 설명한다. 그는 성자의 사역의 초점을 구속사역에서 성부의 주권과 섭리에 순종하는 분으로 무게 중심을 바꾸어 삼위일체론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이끄시는 주체는 삼위 일체 하나님이다.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선교를 이끄시는 주체가 되어 주신다.

정리하자면, 선교는 하나님과 세상과 교회를 연합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선교는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송하셨기 때문에 기쁨마음으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

<sup>12</sup> Lesslie Newbigin, *선교신학개요*, 최성일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5), 75.

<표1> 하나님의 선교와 우리의 선교 연관성<sup>13</sup>



삼위일체론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 교회의 자리와 존재 목적을 재 해석한 것이 선교적 교회다. 하나님의 선교의 빛으로 볼 때,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선택되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권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sup>13</sup> R. Paul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홍병룡 역 (서울: IVP, 2015), 245.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을 증언하는 책임을 부여 받은 교회다. 따라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의 해석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현존하는 '표징'(Sign)으로 존재해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존재가 아니라, 구속적 통치의 종말의 '맛보기'(Foretaste)로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도구'(Instrument)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가 됨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을 바라볼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한 선교적인 구체적인 실천을 가져야 한다. 선교와 교회는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선교적 교회는 성 육신적이다.

선교적 교회는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성 육신적(Incarnational)으로 사역하는 교회이다. 성 육신적이란 의미는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인 성도들이 함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을 포함한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시는 구체적인 사례는, 먼저 아담과 하와를 보내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축복하게 하신 것과 그 후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만 속한 나라로 선택하신 것에서 볼 수 있다.”<sup>14</sup>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

<sup>14</sup> Ibid., 238.

것처럼(창12:1이하) 모든 나라에 복 주시는 것이다. 그 후에 하나님은 자기 종(행 3:13), '보냄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히3:1)를 보내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 지,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떤 경로로 인류를 자기와 교제하게 하시는 지,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선언하신다.

빈센트 도노반(Vinent Donovan)은 "탄자니아에 있는 부족 중 복음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했던 마사이 족(Masai Peoele in Tanzania) 선교에 새로운 원리를 시도하였다."<sup>15</sup> 고 설명한다. 그는 탄자니아 선교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민하였다. 마사이 족을 위한 의료 봉사시설, 교육시설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찾아오는 체계 구조만 존재하였다. 즉 학교 건물과 의료 시설은 존재하나 그곳을 이용하는 학생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의 문제를 파악한 도노반은 성육신적인 선교의 모습으로 변환하였다. 자신이 스스로 마사이족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서 그들의 문화와 삶을 배우고 소통하였다. 이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다.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시고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이와 같이 성육신적인 모습으로 변화해야 한다. 찾아오는 교회에서 찾아가는 교회로 교회 중심에서 삶의 자리 중심으로 이 시대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하고 변화해야 한다.

선교적 교회는 지역과 문화, 관계형성이 필수적이다. 교회가 문화 간 경계를 가로지를 필요가 생기면 언제든지, 장기 신자 혹은 초기 개척 팀의 문화적 기호를 반

---

<sup>15</sup> 잉글랜드성공회 선교와 사회문제 위원회, *선교형 교회*, 168.

영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선교적 교회는 예수님의 성육신적 모습이 반영해야 한다.

선교적 교회는 변화한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교회가 처한 어려움은 상황적 문제, 시대적 문제,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다. 근본의 문제는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말할 수 있다. 성경에서 교회는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라고 말한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본회퍼는 “성숙한 교회일수록 다른 사람을 위한 교회(church for others)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자기 보존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이타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에디 깁스(Eddie Gibbs)은 “역시 숫자놀이에 경도된 오늘날의 교회를 비판하면서 참된 교회의 가치는 어느 교회가 가장 많은 회중을 불러 모으는 가? 어느 교회가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가?”<sup>16</sup>에 달려있다고 설명한다. 교회됨의 척도는 숫자나 규모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영향력에 있음을 강조한 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문화(multi-cultural)라는 것이 점차 명백해지고 있다. 사람들은 한

---

<sup>16</sup> 이상훈, *Re Form Church*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18), 98-99.

가지가 아닌 많은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지구촌(global village)은 한 마을이 아니라, 다른 문화 단위가 섞인 수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는 다양한 종족, 사람, 계층, 언어로 어지럽게 수놓아져 있는 누비이불과도 비슷하다.

토드 프록터(Todd Proctor)는 “교회가 현재의 편안함과 안정감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다.”<sup>17</sup>라고 설명한다. 교회는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가? 교회 공동체는 이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역의 선택과 집중도 지역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사역 철학이 명확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존 맥스웰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이라는 불변하는 성경적 교회 상을 설명한다”.<sup>18</sup>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핵심 가치이며 교회의 사명과 본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다.

낡은 전통을 바꾸지 않는 단체나 사회는 새로운 시대와 환경을 담아낼 수 없다. 지금 세상의 변화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그야말로 정신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얼마나 시대 변화가 빠른 지 수박의 예를 들어본다. 수박은 여름날, 최고의 자연 음료수 역할을 했다. 수분이 많아 먹으면 맛도 있고 갈증을 해소시켜 준다. 수박은 누구나 질푸른 색의 둥그런 공 같은 모양을 연상한다. 그런데 몇 년 전 벽돌과 같이 착착 쌓을 수 있는 네모난 수박이 나왔다. 그 정도만이 아니다. 노란 수박이

---

<sup>17</sup> Ibid., 163.

<sup>18</sup> 김광건, “존 맥스웰의 리더십, 성경적으로 적용하기,” *목회와 신학* (2005.06), 145.

나와 호박인지 수박인지 헷갈리게 하더니, 요즘엔 아예 속까지 노랑 수박이 등장했다.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며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다음 표와 같이 설명한다.

<표2> 교회 2.0과 교회3.0 비교<sup>19</sup>

	교회 2.0	교회 3.0
좌석 배치	일렬	원 모양
분위기	개인적	친화적
지도자	배출 신학교 교육	현장 교육
성장률	더하기	곱하기
결과	새신자 수	영적 군대 양성
사역 주도자	안수 받은 성직자	평신도
자원	추수지에서 수입	추수지에서 발견
지도자의 일차적 역할	목회와 설교	APEST팀 (엡 4:11-12)
교육방식	교실 교육 위주	현장 교육 위주
비용	높은 비용	낮은 비용
사역 장소	모임이나 예배 장소	현장
성공 여부	교인 수	파송자 수
전도 방식	수동형: 누구든 오세요!	능동형: 우리가 가겠소
매력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실제적 삶의 변화
교회 생활	지식 추구	하나님의 가족

닐 콜(Neil Cole)은 “지금까지 우리는 기독교가 성장하는 방법을 오해하고

<sup>19</sup> Neil Cole, *교회3.0*, 안정임 역 (스텝스톤, 2012), 39.

있었다.”<sup>20</sup> 라고 설명한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특별 집회나 전도축제에 초대해서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해 왔다. 예전에는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넘어선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일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단순히 복음을 받아드리게 하는 것은 근시적인 목표이며, 복음의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 세상은 급속히 변하지만 교회는 변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변화를 거부한다. 본질적인 것은 고수하면서도 비본질적인 것은 과감하게 바꾸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성 어거스틴은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sup>21</sup> 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존 스토틀 목사는 ‘균형 잡힌 기독교’란 책에서 설명한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비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우리의 기독교가 균형 감각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

레너드 스윗(Leonard Sweet)은 “배움(Learning)과 교육(Instruction)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sup>22</sup> 고 설명한다. ‘교육’에서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지를 기계적으로 훈련을 받는다. ‘배움’에서는 주어진 상

---

<sup>20</sup> Ibid., 266.

<sup>21</sup> 정성진, *성공하는 교회들의 8가지 정석* (서울: 국민북스, 2019), 78-79.

<sup>22</sup> Leonard Sweet, *모던시대의 교회는 가라*, 김영래 역 (서울: 좋은 씨앗, 2004), 32-33.

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훈련받는다. 똑같은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똑같은 목회자도, 똑같은 목회도 있을 순 없다. 같은 교회에 다니더라도 사람마다 이해하는 방식은 전부 제각각이며 개인에게 있는 독창적인 부분이 있는 것처럼 독특한 목회 지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으로 살펴보면, 오늘날 세계는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한다. 교회는 결코 만나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역동적으로 변화하며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전환될 것이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교회는 복음의 본질과 내용을 바르게 인식하며 선교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확장성이 필요하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며, 사람들의 사고와 인식도 빠르게 변화한다. 이 시대에 교회는 어떤 방향을 가져야 하는가? 목회자 주도적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던 2.0의 교회가 3.0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단순해지고 재생력이 강해지며, 관계 중심적인 교회로 변화해야 한다. 교회는 성도들을 섬기는 장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서로를 섬기며, 상처받은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이다. 변화된 이들이 모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선교적 교회는 제자를 키운다.

선교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돕는다. 교회는 자신이 딛고 있는 문화와 단절되지 않으면서 그에게 적절하고 일관성 있는 기독교 생활 방식을 개발하며 섬긴다. 교회는 복음의 관점과 가치에 기초한 공동생활로 대항 문화적인 도전을 문화에 던진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받은 재능과 소명을 격리하고 지도자 개발에 주력하며, 교회는 공동체의 변화뿐 아니라 개인의 변화에도 애를 쓴다.

르로이 아임스(Leroy. Eims)는 “제자훈련은 목적을 이끄는 과정이며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단순한 행위로 아는 것을 경계 해야한다.”<sup>23</sup>고 설명한다. 제자훈련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성경공부가 사용되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제자훈련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자훈련이란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 사역의 열매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의미에서 새 신자를 육성할 때 사용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고 제자훈련의 본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제자를 부르신 것이다. 열 두명의 제자를 집중적으로 훈련시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집중하셨다.

교회는 이제까지 전통적인 개념의 소그룹 사역을 지향해 왔다. 그러나 소그룹이 선교적인 소그룹으로 재정립되면서 사역의 초점이 바뀌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공동체 자체를 유지하고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던 소그룹이 비 신자를 향한 선교 중심적 소그룹으로 전환된 것이다. 오스틴 스톤 커뮤니티교회는 선교적인 소그룹에 기반을 둔 교회로 구조 자체를 변혁했다. 선교적인 소그룹은 재생산을 위한 에이전트이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근거지로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해야 한다.<sup>24</sup>

정리하자면, 오늘 날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은 예수님을 사역을 통해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며 훈련하셨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

<sup>23</sup> Leroy. Eims, *제자삼는 사역의 기술*, 네비게이트번역부 역 (서울: 네비게이트출판사, 2009), 89.

<sup>24</sup> 이상훈, *Re Form Church*, 105.

과송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모든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해야 한다. 훈련의 원리는 소수선택의 원리, 교제의 원리, 시범교육의 원리, 현장 실습의 원리, 재생산의 원리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셔서 훈련시키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선교적 교회의 제자훈련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을 확신한다.

선교적 교회는 관계 중심이다.

라토레트(K. S. Latourette)는 “교회는 환대 공동체라고 말한다. 교회는 돌봄과 교제와 자비와 섬김을 가르친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sup>25</sup> 라고 설명한다. 섬기는 교회의 모델은 하나님 자신이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는 섬김의 분이 되어 주셨다. (빌2:5-11). 예수님께서서는 섬김과 사랑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다.

초기 교회 공동체는 환영과 환대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공동체의 특징은 새로운 구성원이 참여할 때 서로를 환영하고 축복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이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신자들은 서로 격려하고 섬기며 상호신뢰의 관계를 맺도록 격려 받는다.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상호 신뢰 없이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선교적 교회는 홀로서기를 지향하지 않는다.<sup>26</sup>

살펴본 바와 같이, 선교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

---

<sup>25</sup> K. S. Latourette, *기독교의 역사*, 허호익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4), 314.

<sup>26</sup> 잉글랜드성공회 선교와 사회문제 위원회, *선교형 교회*, 169.

들에게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세상을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하며 연합하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 선교적 교회는 다섯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성 육신적이어야 한다. 셋째, 변화해야 한다. 넷째, 제자를 키워야 한다. 다섯째, 관계 중심적이어야 한다. 이 다섯 가지 원칙은 교회의 모양이 다양해지고 유동적으로 변화할 때 중심을 잡아주는 기준이 된다.

### 성경적 관점의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가 가장 잘 나타낸 성경은 사도행전이다. 사도행전은 1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선교 위임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기록을 기록한 말씀이다. 그의 성경은 선교적 교회론의 기초이다. 삼위 일체 하나님이 원하시고 가르치신 교회공동체는 선교적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안택윤은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마16:18)에 최초로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다. 여기서의 교회는 ‘에클레시아’(Ecclesia)이다. 이 말은 희랍어로 ‘밖으로 불러

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고 설명한다.<sup>27</sup> 에클레시아는 희랍의 직접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모임으로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중요한 회의를 할 때에 많은 희랍 폴리스의 시민들을 밖으로 불러 낼 때의 회의를 말한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밖으로 불러냈다'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불러냈다는 뜻이다. 제자들을 예수께서 부르실 때에 이와 같은 목적으로 부르셨다.

조병호는 "사도바울이 로마 제국의 박해로 죽음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교회들을 걱정하지 않은 이유는 어려서부터(infancy, 약 5세부터) 성경을 배운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이다."<sup>28</sup> 고 설명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하고 있다. 이는 성경을 어린 시절부터 배우고 암송하며 가르칠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이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준 것임을 알 수 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선교적 교회론을 전개해 나가는 데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하고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의하여 보냄(파송)을 받은 선교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교회공동체(너희/제자들)을 또 다른 선교사로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

<sup>27</sup> 안택윤, *삼위일체조직신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2), 190.

<sup>28</sup> 조병호, *제사장나라 하나님나라* (서울: 통독원 2016), 116.

된다. 즉, 교회는 세상(지역사회) 속에서 파송 받은 선교공동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찰스 벤 엔겐(Charles Van Engen)에 따르면 에베소에 나타난 선교적 교회론을 말한다.<sup>29</sup> 에베소서 4장 4-6절은 말한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설명한다. 성경적 관점에서 교회는 오직 하나된 공동체이다.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은사대로 서로를 도우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봉사와 선교의 일을 하도록 이끄신다.

선교적 교회와 반대되는 개념을 제도적 교회라고 표현한다. 제도적 교회와 선교적 교회의 내용을 비교해 볼 때 그 특성과 속성이 잘 드러난다. 이것을 여러 측면에서 비교하여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30</sup>

<표3> 선교적 교회와 제도적 교회 비교

	제도적 교회론	선교적 교회론
주요 신학적 근거	기독론과 구속론	삼위일체론과 하나님의 선교
예수이해 강조점	구세주	선교사
교회 정체성 이해	구원의 방주, 영적 관리 제도	세상의 빛과 소금, 선교공동체
교회구조 이해	서열적 계급적 이해	은사 중심적 이해
목회자 정체인식	교회 지도자, 교회 관리자	마을 선교사, 지역 선교사
목회 목적 이해	교회 성장	지역사회 속에

<sup>29</sup> Charles Van Engen,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임윤택 역 (서울: 두란노, 1994), 61.

<sup>30</sup> 김홍천, *선교와 교회 2020* (서울: 지구촌선교연구원: 2020), 43-44.

		하나님나라 구현
지역교회와 지역사회 관계성 이해	대립적 관계	협력적 관계
평신도 역할 이해	교회에 충성하는 교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한 일꾼
선교의 주체	교회가 선교를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교한다 교회는 참여한다
부각 시점 / 상황	기독교가 강할 때, 강해질 때	기독교가 약할 때, 약해질 때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으로 보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셨다. 세상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만드셨다. 새 생명을 얻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선교사이시며 교회는 그분의 선교에 동참해야 한다.

데이브드 보쉬가 말한 바와 같이 선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봉사하고 연합하는 것이다."<sup>31</sup> 라고 설명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가 되셔서 지금도 일하시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교회와 성도를 초청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창세기 11-12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과 '모든 민족'에 대한 큰 담론을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언급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고자 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 복의 통로로 제사장 나라를 세워 세상 모든 사람과 소통하고자 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오랜 세월을 기다리셨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

<sup>31</sup> David J. Bosch, *변화하는 선교*, 김만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7), 579.

나라를 세울 만큼 인구수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 시키셔서 시내 산으로 이끄셨다.<sup>32</sup>

살펴본 바와 같이 선교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부터출발하는 하나님의 활동이다.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부름을 받은 존재이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선교의 주체이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과 모든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교회는 거룩성을 지키며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일은 선교의 정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위임령에 근거하여 세계복음이 완성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기독교 비기독교인들 가운데 전파되는 사역에 관련된 모든 학문적 연구"<sup>33</sup> 라고 설명한다. 선교적 교회론은 예수님을 선교사로 바라보며 이해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모든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구원할 메시아로 보냄을 받은 선교사이며 철저한 자기 비우심과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부름을 받은 백성으로 이해한다.

### 신학적 관점의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론의 신학적 배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

---

<sup>32</sup> 조병호, *제사장나라 하나님나라*, 44.

<sup>33</sup> 한국일, *선교적 교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사), 121.

교(Missio Dei)이고 둘째는 통전적 선교(Holistic Mission)이라고 말한다.

김영동의 견해를 정리하면, 바람직한 교회론은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적용한다. 교회만의 목회적 울타리를 넘어 이 세상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연합하는 통전적 선교의 실천이라고 설명한다.<sup>34</sup> 이러한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를 신학적으로 살펴보자.

###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신학

김영동에 따르면 하나님의 선교를 경험하면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변화한다. 가치관이 변화하면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모습과 행동이 변화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선교는 수많은 교회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전략하고, 많이 하고 잘한다 싶으면 교만에 빠지고 적게 하고 잘 못한다 싶으면 절망으로 빠지고 만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sup>35</sup> 그래야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는 분명한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고 섬길 수 있게 된다. 선교의 교과서인 성경이 이 사실을 증거한다.

요하네스 버쿨(Johannes Verkuyl)은 “하나님의 나라 사상 속에 선교의 다양한 요소가 표현되어 있다.”<sup>36</sup>고 설명한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총체적인 구원의 선포와 실현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체적 구원이란 인간의 요구의 전

---

<sup>34</sup> 김영동, *2011년 종교개혁기념 학술강좌, 9*.

<sup>35</sup> Christopher J. H, *하나님의 선교, 23-38*.

<sup>36</sup> Edward R. Dayton, David A. Fraser, *세계선교의 이론과 전략,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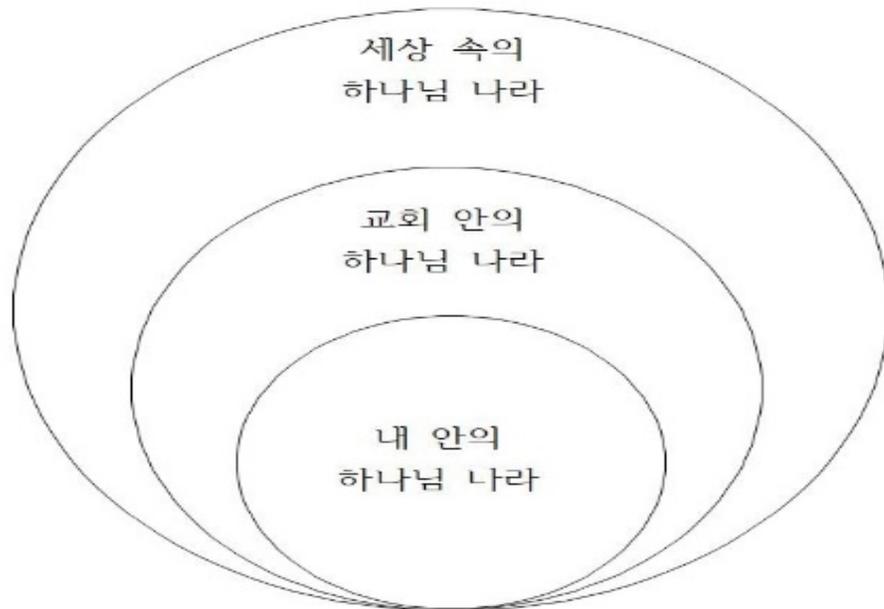
면적인 범주를 포괄하고 인류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신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어떤 사상도 그 범위와 의미를 초월할 수 없는 개념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과 땅, 전 우주와 세계의 역사를 모두 그 안에 품고 있는 나라이다. 이와 같이 선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응답하도록 급진적이며 신중성을 가지고 도전하는 일을 말한다.

한편 비케돔(Vicedom)은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하여 말한다. 그는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동시에 한정적 속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sup>37</sup>고 설명한다. 즉,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보냄 받은 분도 되신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보냄 혹은 선교를 말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의 보내심의 개념을 보다 넓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위한 구원의 활동을 보내심으로 말하고 설명한다.

---

<sup>37</sup> Georg f. Vicedom, *하나님의 선교*, 박근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18.

&lt;그림1&gt;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서는 전 피조물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우는 목표를 가지고 그 아들을 세상에 파송 한 하나님으로부터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다.”<sup>38</sup> 하나님의 선교는 주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세우시는 과정 속에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선교는 크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교회를 그 사역의 일부로 사용하신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만들거나 이끌어 가는 주체가 되지 못하며, 하나님의 선교를 돕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의, 교회 안의, 내 안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연합하는 도구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를 하나님이다. 선교는 하나님과 아들 그리고 성령이 보내심을 통해 행하시는 삼위일체론적인 근거에서 이루어지

<sup>38</sup> 한국선교신학회, *선교학 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231.

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식되고 행해진다. 선교에 대해 그저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교회가 해야 할 과제로만 보지 않는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함으로써 선교의 목표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것을 말한다.

### 통전적 선교(Holistic Mission) 신학

20세기에 통전적 선교신학의 이론과 실제에서 관심이 있는 주제는 '통전적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구원의 개념을 개인의 영성과 교회의 부흥에 집중하는 복음주의 진영과 세상의 구원과 인간화를 강조한 에큐메니컬 진영이 바로 그 갈등의 중심이다.

복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들은 후에 영국으로 건너가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복음주의자(Evangelicalle)'로 표현되었다. 17세기 청교도 선구자들과 18세기 감리교 각성 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사람들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유럽은 독일 경건주의 선구자들, 스페너(P. J. Spener), 치켄발크(B. Ziegenbalg), 플워차우(H. Pluschau) 등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 즉 종교개혁은 복음주의 진행으로 말하며, 경건주의 운동은 청교도의 뿌리를 찾아볼 수 있다.<sup>39</sup>

변창욱은 "선교적 교회의 또 다른 신학적 기반은 통전적 선교(Holistic Mission)이다. 선교신학의 흐름에서 통전적 선교는 에큐메니칼(Ecumenical) 선교신학과 복음주의(Evangelical) 선교신학이 강조하는 선교의 목표에 대한 합의 사항을

---

<sup>39</sup> 김은수, *현대 선교의 흐름과 주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216.

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한다.<sup>40</sup> 개인의 구원보다 사회적 구원을 이루는 것  
에큐메니칼 신학에서는 중요한 과제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개인의 영혼구원과 하나  
님의 복음을 전파를 복음주의자들에게는 우선순위라고 말한다. 이후 1974년 로잔 언  
약(The Lausanne Covenant, 1974)으로 사회적 구원과 개인 구원 사이는 동일한 가치  
를 추구해야 한다는 합의점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살펴볼 때, 선교는 모든 개인의 영혼구원과 사회적 구원이라는  
개념을 모두 수용하는 통전적 선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갈등과 분  
열의 연속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각 교회와 교단마다 서로 다른 신학적 입장과 선교  
의 모습을 가르친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모습  
이며 다른 입장을 비판하고 나누는 일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존 스토틀(J. Stott)는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에 근거하기 때문에 예  
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모델을 따라야 한다.”<sup>41</sup>고 주장한다. 교회의 선교를 절대적  
으로 예수님의 선교 대 위임을 근거로 말하며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이해한 것으로 말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통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심자들을 영혼구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

<sup>40</sup> 변창욱,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새 마음* (서울: 미션 아카데미, 2007), 162.

<sup>41</sup> 세계교회협의회, *통전적 선교를 위한 신학과 실천*, 김동선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258.

정리하자면 성경에서는 사회적 책임과 복음전파를 서로 나눌 수 없으며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사실을 통전적으로 말씀하신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교는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사회 모든 구성원들을 위한 공동체 즉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여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의 선교는 통전적으로 진행되며 개인과 사회를 모두 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다.

## 제 III 장

### 선교적 교육목회의 이해

한국교회 안에서 교육목회는 하나의 보통 명사화 되어 사용된다. 그만큼 교육목회가 사역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선교적 교회를 위한 목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선교적 교육목회가 필요하다. 선교적 교육목회는 선교와 교육목회를 통합한 모델을 의미한다. 선교가 무엇인지? 교회란 무엇인가? 함께 고민하며 교회의 생태계를 선교적 교회의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말한다.

#### 선교적 교육목회의 정의

박봉수는 “교육목회는 두 가지 개념이 복합된 말이다. ‘교육’과 ‘목회’라는 개별적 단어가 복합적으로 합성이 되어 새로운 독특한 개념으로 발전된 말이다.”<sup>42</sup> 고 설명한다. 이러한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목회를 우선적으로 정의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목회라는 의미로 통합하여 새로운 내용으로 사용되어 왔는지를 고민해보아야 한다.

---

<sup>42</sup> 박봉수, *교육목회의 이해*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2008), 18-19.

### 교육의 개념정의

'교육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기존의 중요시되는 교육의 개념 정의를 알아 보아야한다. 철학자 플라톤(Platon)은 교육은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 즉 진리의 세계로 무지한 인간을 안내하는 과정" 이라고 정의했다. 듀이(John Dewey)와 같은 실용주의 철학자는 "교육을 끊임없는 경험의 개조 과정'으로 말한다". 매슬로(Abraham Mannheim)와 같은 인본주의 심리학자는 "자아실현을 위한 인간 형성의 과정"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sup>43</sup> 고 설명한다.

교육에 대한 정의는 사람과 시대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편적인 교육을 설명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된다. 교육에 대한 정의는 개인의 가치관, 집단의 성격, 세계관, 인간관 등 다양한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가치관이 보편적일 수 없는 것처럼 교육의 개념 정의도 보편화 될 수 없는 것이다. 교육철학자들은 이점에 동의하면서 교육의 개념 정의를 보편하려는 작업 대신, 교육이라는 개념 속에 보편적인 요소가 있으리라는 전제 하에 이 보편적인 속성을 찾는 시도를 해왔다.

어떤 행위가 교육으로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냐는 방법이 없다면 교육이라고 말 할 수 없다. 다시 설명하자면, 교육은 지식이나 신체적 기

---

<sup>43</sup> Ibid., 21.

능만을 가르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황규정은 교육은 “인간의 성장에 관한 활동이다. 제도적 체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나 일상적 삶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나, 어떤 의미의 교육에서도 그것은 인간의 성장에 관한 것이다.”라고 설명한다.<sup>44</sup> 우리는 개인이나 집단의 성장과 성숙을 목표로 교육을 진행한다. 어느 시기, 장소, 대상이 누구라도 교육은 인간의 성장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의 개념은 성장과 성숙을 지향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교육을 재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인간은 누구나 성장하고 성숙하며 인생을 살아간다.

‘교육’의 개념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며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살펴보면 ‘교육’이라는 개념을 정의하자면 열려 있는 개념(open concept)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 속에 그것이 교육다운 교육이라면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 의도성

교육은 인간의 행위로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의 행위인 교육은 사실상 의도적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에는 의도성을 전제하고 다음의 개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무엇을 이루려는 동기를 가진다는 것이다. 둘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동기를 의식하고 행동하며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이다. 셋째, 목표를

---

<sup>44</sup> 황규정 외 2명, *교육학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2007), 47-48.

위한 직접적인 행동은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선택하고 진행한다.

박봉수에 따르면 교육은 “하나의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그 동기와 목적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행동이 적합성과 효율성을 가지며, 그리고 그 행위가 행위 주체자의 자율적인 의지와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sup>45</sup> 고 설명한다. 교육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나 우연적인 것들은 교육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분명한 목적과 동기가 인식되지 않았고, 행동의 효율적인 요소를 검토하지 못하여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 인간 변화성

박봉수는 교육은 “의도성을 가지며 가치 지향적인 인간 행위라는 점과 아울러, 교육은 인간 변화를 추구하는 행동이라는 사실도 중요한 개념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sup>46</sup> 고 설명한다.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고 사회적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많은 부분 가운데 특정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여 변화하기도 하지만 인간은 전 생애의 걸쳐서 성장하고 변화한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 부분의 변화에 집중하는 것은 훈련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인간에게 변화는 그 시대의 특성에 맞게 자연스럽게 변화하며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이 개념은 지적인 이해와 실천적인 행위를 기반으로 반복적으로 실시될 때 변화하고 성장하게 된다. 인간은 변화를 도모하며 사는 존재이며 변화를 추구하

---

<sup>45</sup> 박봉수, *교육목회의 이해*, 23-24.

<sup>46</sup> Ibid., 25.

는 존재로 성장한다.

### 상호 작용성

교육은 교육을 받은 대상자와 교육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피 교육자 스스로 자기 개발을 이어가는 것을 교육이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교육은 정확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이를 교육한 교육자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피 교육자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들은 교육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인 동시에 상호 작용을 통하여 교육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기도 한다

먼저 박봉수는 “교육을 하나의 사건으로 교육자와 피교육자, 교육공동체와 피교육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치 지향적 인간 변화의 사건”으로 설명한다.<sup>47</sup> 여기서 말하는 상호 작용이란 인격적 만남을 필수요소로 말한다. 서로가 상호교감, 관심과 배려, 가치의 공유 등 심리적인 교류가 나타나는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이란 이끌어 내는 과정과 채우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인상의 성장을 이끌어내어 변화시키는 행위이다. 교육은 인간이 사회적인 인물로 성장하기에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 행위는 기본적으로 의도성, 상호 작용성이라는 개념을 필수 요소로 갖는다.

---

<sup>47</sup> Ibid., 21-22.

### 목회의 개념정의

“목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이다.

그 답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 이유는 목회라는 단어가 성서시대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그 시대와 문화를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목회라는 개념이 더욱 넓은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표현방식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 사전적 의미

‘목회’ 라는 의미는 영어로 ‘ministry’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목회라는 의미는 정말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목회는 성도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과 삶을 살피고 보살피는 행동을 의미한다. 본래 목회라는 말은 서구 교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개념이다. 비슷한 개념을 살펴보면 독일어권의 ‘Seelsorge’를 들 수 있다. 이 뜻은 개인의 영혼을 보살피는 일이라는 개념 사용된다. 영어권에서는 ‘Pastoral Ministry’라는 복합어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의미는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살핀다는 의미가 강조된다. 목사(Pastor)라는 말로 개념화하여 ‘Pastorate’란 말이 가끔 사용되기도 하지만 목회라는 본래의 뜻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sup>48</sup>

---

<sup>48</sup> Ibid., 26-27.

최근 목회자들 중심으로 보다 넓은 의미에서 목회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사역'이라는 말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목회자들의 기능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의미에서 사역을 사용하기도 한다.

### 어원적 의미

목회의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섬김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예수님께서 양의 목자가 되셔서 양떼들을 보살피고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섬기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심으로 종이 주인을 섬기는 구조에서 주인이 종을 섬기는 구조로 변화하게 된다. 목회라는 의미는 기독교 안에서 사용되면서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박봉수는 이를 두 가지로 정리하여 말한다. "첫째는 섬기는 사람과 섬김을 받은 사람 사이의 관계의 변화이다. 마땅히 섬겨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섬기는 관계의 역전이다. 둘째는 의무에서 사랑으로의 변화이다."<sup>49</sup> 라고 설명한다. 섬겨야 할 사람이 의무적으로 그 일을 섬기는 것과 사랑과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은 다른 일이다. 사랑과 자발적으로 섬기는 모습으로의 변화를 말한다. 결국 목회란 의무보다는 자발적인 사랑과 섬김에 기초해 사랑으로 봉사하는 전반적인 행위를 말한다.

---

<sup>49</sup> Ibid., 28.

## 신학적 의미

신학적 근거에서 목회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회'(God's Ministry)라는 뜻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교회 안에서 수행되는 목회는 하나님의 목회라는 본질적인 내용을 근거로 생각할 수 있다.

앤더슨(Ray Anderson)은 "모든 목회는 곧 하나님의 목회라고 규정하기까지 했다. 하나님의 목회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본질적 특성을 보여준다."<sup>50</sup> 고 설명한다. 그 관계를 주인과 종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인은 사실 마땅히 주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종의 의무를 행사하며 섬기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인은 종에게 명령과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모습으로 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실재는 물질세계에 퍼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퍼진다"는 단어가 함축하는 바는, 그저 의미가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물리적 차원과 영향력도 있다는 말이다. 영적인 삶은 단순히 흥미로운 종교 개념이나 천국에서 기대할 수 있는 무언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영적인 삶에는 실재적인 차원이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맛보고, 냄새 맡으면, 만지고, 보고, 들을 수 있다. 그것은 현실이다.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은 "예수님은 평생 고향에서 5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는 가본 적이 없으시지만, 그분의 생활 환경이 좁았다고 비난할 사람은 아

---

<sup>50</sup> Ibid., 29.

무도 없을 것이다.”<sup>51</sup> 라고 설명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제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나 단순한 이야기라도 큰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가운데로 오셨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육신의 옷을 입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섬기며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

선교적 교육목회를 정의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존재한다.

“교육목회는 일반 목회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라는 점이며 “교육목회는 목회의 여러 기능 가운데 하나인가?” 생각하는 점이다. 교회의 기능은 여러 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다섯 가지 영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코이노니아(Koinonia)이다. ‘교통, 친밀한 연합, 상호 공유함, 참여적인 관계’라는 의미가 있으며 교회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는 기능을 말한다.

둘째, 레이투르기아(Leiturgia)이다. 이는 성도들이 주님을 섬긴다는 표현으로 사용했으며, 예배, 성만찬, 기도 등의 교회의 예전 기능을 말한다.

셋째, 디다케(Didache)이다. 이는 교훈(가르침)이라는 뜻이다.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넷째, 케리그마(Kerygma)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의 기능을 말한다.

---

<sup>51</sup> Leonard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35-36.

다섯째, 디아코니아(Diakonia)이다. 이는 '자선과 구제'의 의미를 포함한 말로서,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섬기는 기능을 말한다.<sup>52</sup>

마리아 해리스(Maria Harris)는 "교육목회 커리큘럼을 통해 교회교육이 교회 학교와 구별되어야 한다"<sup>53</sup>고 설명한다. 즉, 교회교육은 자라나는 세대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은 일 평생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교회교육을 학교의 방식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지나치게 범주를 좁히는 것이라는 점이다.

교육목회는 다양한 목회 영역 가운데 특별히 다섯 가지 영역을 강조한다. 그 영역은 코이노니아, 레이투르기아, 디다케, 케리그마, 디아코니아로 설명하며 신앙생활과 목회의 전 영역을 교육적인 의도성을 가지고 기획하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대의 리더십은 '준비'(equipment)라는 명사를 중요시했다. 반면 포스트모던 리더십은 '준비하다'(equip)는 동사를 강조한다. 복음서에 '준비하다'(equip)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예수께서 배에서 그물을 수리하고 있는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을 보셨을 때였다(마4:21, 막1:19).

---

<sup>52</sup> 박봉수, "교육목회란 무엇인가?," *교육목회1999년 가을호*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교육부, 1999), 24.

<sup>53</sup> Maria Harris, *교육목회 커리큘럼*, 고용수 역 (서울: 장로교출판사, 1997), 47.

'준비하다'(prepare)에 해당하는 희랍어는 kartatizo로서 '벌어진 틈을 수리하다, 다시 온전케 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이 말에는 곧 임무를 수행하도록 '장비를 갖추다'(equip), '준비시키다'(prepare), '힘을 더하다'(strengthen)는 뜻도 있다. 장비를 갖추는 것은 스스로 그물을 고친다는 뜻이 아니다. 교회의 유기적인 시스템에서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허락하고, 리더 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또한 가장 낮은 서열을 포함하여 모든 스텝들이 자유롭게 창조력을 발휘하여 일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하도록 격려하고, 권한과 권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야 한다. 어떤 살아 있는 시스템에서 복잡성과 무질서를 제거해버린다면 그것이 생득적으로 갖고 있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면역력과 경험 하지 못한 공격에 스스로 대비하는 능력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결국엔 사멸하게 된다.<sup>54</sup>

선교적 교육목회는 어린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교회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현재의 새로운 구조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전체가 전공동체로 하여금 세상 한가운데서 사역을 하도록 가르치며,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서로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이전과 새로운 구조의 틀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표4> 교육목회 교육구조

영역 \ 교육구조	이전의 구조	현재의 구조
교육 기관	개인과 선임된 사람	전공동체
교육 활동	수업과 교리주입	교육과 능력부여
교육 참가자	어 린 이	전공동체
교육 방향	전통을 배우고 법을 준수함	세상 속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함

<sup>54</sup> Ibid., 47.

정리하자면, '선교적 교육목회'란 목회적 소명(pastoral vocation)과 교육적 소명(educational vocation)을 가지며,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을 세워가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코이노니아(공동체와 교제), 레이투르기아(예배와 기도), 케리그마(하나님의 말씀선포), 디아코니아(봉사와 섬김), 디다케(교수와 학습) 5개의 영역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훈련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 참여하도록 교육하는 통전적 교육적 목회라고 정의한다.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교육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어떠한 교회는 선교의 사명은 강조하면서 교육에 대한 경우에는 다소 소홀한 경우가 있다. 선교적 교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교적 교육목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 선교적 교육목회의 구성

선교적 교육목회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나타내며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표5> 하나님 나라와 신앙표현 영역<sup>55</sup>

영역	핵심	기대되는 학습경험
교제와 친교(코이노니아)	교제, 친교, 참여 목표: 문화화	공동체성(회중성)
예배와 예전(레이투르기아)	예배(찬양, 기도), 성만찬 목표: 신앙화	하나님의 임재경험 감사, 찬양
가르침과 훈련(디다케)	말씀의 가르침 목표: 제자화	기독교적 세계관, 가치관
말씀선포와 전도 (케리그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목표: 복음	회개와 회심, 전도

<sup>55</sup> 예장총회교육부, *하나님나라: 부르심과 응답 교육과정지침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8.

봉사와 섬김 (디아코니아)	나눔과 섬김, 정의와 평화 목표: 역사화(세계화)	치유, 화해, 헌신
-------------------	--------------------------------	------------

### 코이노니아(Koinonia)

코이노니아(Koinonia)는 교제를 뜻하는 말이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우 사이의 교제를 말한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교제는 개인적인 욕구 해결 차원에 머물며 사회적인 책임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교회의 본질로서 코이노니아는 복음과 섬김으로 성장해야 한다.

코이노니아는 헬라어로 교제(fellowship)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성경적인 의미를 살펴볼 때 코이노니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코이노니아의 의미를 기억하게 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성부 하나님에게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의 성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게 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첫째, 둘째, 아래 줄 간격 체크해주세요)

첫째, 함께함(togetherness)이다. 여기서 함께함이란 예배, 찬양, 기도, 가르침, 성만찬 등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함을 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장차 함께하게 될 사람들과의 함께함을 말한다. 이 함께 함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신앙공동체를 세워 간다.

둘째, 하나는 형제 사랑(brotherly love)이다. 초대교회 시절 신앙 공동체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형제로 받아들였다. 또한 누구든지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 그 모두를 형제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즉, 열린 공동체였다. 이런 형제 사랑은 함께 식탁공동체를 이루었고, 또한 가진 것을 나누게 해 주었다. 즉, 이 형제 사랑은 당시 주인과 노예가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했고,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과 소유를 공유할 수 있게 했다.<sup>56</sup>

<sup>56</sup> 박봉수, *교육목회의 이해*, 192-93.

박봉수는 “코이노니아가 회중 안에서 역동적으로 살아나게 될 때 회중 내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 내에서의 삶의 양식을 발전시켜 가게 될 것이다.”<sup>57</sup> 라고 설명한다. 즉,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다. 그 결과로 믿음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전 생애에 걸쳐 성화의 과정으로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다.

찰스 크래프트(Charles H. Kraft)는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인간들과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신다. 인간과의 관계형성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전적으로 신적 영역에 해당한다”<sup>58</sup>고 설명한다. 즉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조차 없는 인간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사랑과 은혜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의 메신저이며 메시지 자체였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전달하였고 마지막 때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것을 말씀하셨다. 따라서 복음을 청취하고, 복음에 따라 살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 소명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성령은 복음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촉진자의 역할을 제공했다. 교회는 신자들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증진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의해 선택된 도구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메시지의 핵심이며 하나님 나라의 중심적 가치인 개방성, 화해, 평등, 사랑, 교제의 가치를 내면화 하고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

<sup>57</sup> Ibid., 192-93.

<sup>58</sup> 김영래, *기독교교육과 미래세대* (서울: 도서출판 땅에쓰신글씨, 2007), 21-23.

를 창조하시고 에덴동산이라는 곳에 첫 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셨다. 이 사권의 관계가 생명과 현상의 본질이며, 낙원의 본질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회복된 관계를 나타낸다.

은준관은 “코이노니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 없는 코이노니아는 절대적으로 형성될 수 없으며, 이 믿음은 인간적인 사권의 행위에 앞서는 것이다.”<sup>59</sup> 라고 설명한다. 즉,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통하여 깊어지고 유지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권으로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며 주와 함께 생활한다.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사람을 만나고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 주의 백성인 성도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연합하며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마리아 해리스는 “교회사역의 출발점을 공동체에 두고, 우선적인 사역으로 공동체와 교제를 제안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이는 생활 즉, 공동체 생활 속에서만 가르침과 섬김과 예배 프로그램의 양식들로 이해한다.”<sup>60</sup> 라고 설명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한다는 것은 창조 되어야 할 그 백성이 공동체를 이루고 교제하지 않는다면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코이노니아는 소속감을 강화시키는 자극제가 된다. 전통적인 유산, 신념과 삶의 방식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인도하며 촉진하

---

<sup>59</sup>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서울: 연세대출판부, 1995), 193.

<sup>60</sup> Maria Harris, *교육목회 커리큘럼*, 90.

는 자극제가 되고 아울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함께 나눔의 필요성을 진작시키는 촉진제가 된다.

헤리스는 “공동체에 구현되어 있는 그 이상은 다른 사람들과 일치와 통일을 향한 움직임이 된다.” 고 설명한다.<sup>61</sup> 다시 말하자면 ‘공동체’(community)와 ‘교제’(communion)를 통한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신음이나 울부짖음이나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두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모든 것이 어울려지는 후렴(umdersong)이다.

레너드 스윗(Leonard Sweet)은 “예수님께서는 식탁으로 사람들을 초청하셨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예수님이 좋아하는 이미지는 모두가 식탁에 둘러 앉은 잔치였다.”<sup>62</sup> 라고 이야기한다. 모든 사람들이 식탁으로 온 것은 아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것도 아니다. 일부는 초청을 무시하고, 일부는 예수님의 초청하신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모했다. 당신이 예수님의 초청을 수락하든 거절하든 잔치는 열린다. 당신이 오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도 마음이 바뀔 경우를 대비해 예수님은 당신의 자리를 비워 두신다. 우리가 모인 자리로 예수님을 초청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식탁을 발견한다. 예수님께서 축복하고 떼어 주시는 자리에 온 세상은 생명의 떡과 잔을 받게 된다. 예수님의 제자이자 식탁에 앉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취하고 축복하고 떼어 나눌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

---

<sup>61</sup> Ibid., 91.

<sup>62</sup> Leonard Sweet, *태블릿에서 테이블로*, 장택수 역(서울: 예수전도단, 2015), 76-81.

고 부활의 주님을 드러낸다.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라고 정의한다. 교회의 정의는 무엇에 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관한 것이 다. 그러므로 교회의 관심과 사역 원리 역시 프로그램이나 건물이 아닌 '사람'에 게 맞춰져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역은 선교적 정체성을 가진 헌신된 사람들에게 의해 계획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교회 공동체는 가장 기존적인 선교지이다. 이 때문에 그들을 자신의 집에 친구와 동료, 이웃을 초청하고 그 모임을 통해 예 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며 나아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까지 훈련시켜야 한다.<sup>63</sup>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하나로 연합하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을 함께 연합하는 형제와 자매이다. 성도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확신한다.

#### 레이투르기아(Leiturgia)

이상훈은 "레이투르기아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목회적 소명에 따른 교회생활 이다. '백성들의 활동' (the work of the people)으로 번역되는 영어 단어 '예 전'(liturgy)은 공적 예배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에서 유래했다."<sup>64</sup> 라고 설명한다. 존 웨스터 호프(John Westerhoff)가 주목 했듯이, 예전은 "의례적 삶(의례적 축제)

---

<sup>63</sup> 이상훈, *Re Form Church*, 148.

<sup>64</sup> *Ibid.*, 114.

과 매일의 삶을 함께 포함하는 백성들의 화동”을 언급하였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초기 기독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으며, 제자들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어지는 위임의 말씀이라고 말한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과 현현이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완성이 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은 반드시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에는 세상의 심판과 종말을 이루기 위함이다.

훈(Paul Hoon)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인간의 예전적 만남”<sup>65</sup> 이라고 정의했다. 예배를 통해 창조주 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으며 그분과 연합하는 만남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부르심과 응답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

<sup>65</sup> 박봉수, *교육목회의 이해*, 194.

시간을 의미하며 이 응답은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동체가 드리는 공동의 응답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마리아 해리스는 특별히 기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였다. “교회 내에 기도의 형태가 ACTS로 설명하였는데, 기도의 형태는 찬양(Adoration), 참회(Contrition), 감사(Thanksgiving), 탄원(Supplication)이다.”<sup>66</sup>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에게 드러지는 것임으로 레이투기아와 연결시켜 설명하였다. 우리는 기도시간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과 관련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때로 하나님과의 대화는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것, 관상적인 기도, 명상과 같은 방법이 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이 기도라는 사실 기억해야 한다. 또 기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안식일(Sabbath)을 지키라는 고대의 계명은 인간에게는 휴식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는 사실로부터 생겨난 ‘명령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활동을 중단하고 바벨론 사람들이 표현했듯이 ‘심장을 조용히 쉬게 하는 것’ 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어 진다. 왜냐하면 큰 어려움 없이, 적어도 매일 잠깐 동안 우리는 통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과 마음이 습관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에서 모든 일들을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듯한 삶을 나태내면서 내 영혼속에 풍성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구약성경의 인물 중 요셉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살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것이 요

---

<sup>66</sup> Ibid., 117-18.

셉의 삶 속에서 너무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며,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관해 가시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요셉의 이야기에는 그가 중대한 위기를 맞은 후나 패배를 당한 다음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구절이 다섯 번 등장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창39:21).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그분에 의해 조종이나 당하는 꼭두각시 인형이나 로봇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배려하시며 소중하게 여겨 주시는 분이시다.<sup>67</sup>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과정과 결과를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끄시는 분이시며,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sup>68</sup>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를 모른 척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우리의 영혼은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협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주승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서 감사와 찬양과 헌신과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한 행위를 가리켜서 레이투르기아라고 부른다.”<sup>69</sup> 이와 같은 내용은 신앙공동체의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하여 구약성경을 보면 제

---

<sup>67</sup> Rick Warren, *하나님의 인생레슨*, 김창동 역 (서울: 디모데, 2008), 228.

<sup>68</sup> Ibid., 230.

<sup>69</sup> 주승주, “레이투르기아와 소망,” *교육목회저널*,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교육부, 1999), 118-19.

사장이 성전이나 성막에서 섬기던 일(눅1:23)을 “레이투르기아”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예배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을 위하여 노동과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다. 즉, 레이투르기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 디다케(Didache)

헬라이어 디다케(Didache)는 가르치다, 가르침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설명한다. 다드(C. H. Dodd)가 「사도적 설교와 그 발전」이라는 책을 통하여 말한다. 신약성경을 자세히 파악하면 케리그마와 디다케의 분명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디다케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를 대상으로 기독교의 역사와 사상을 가르치며 그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가르친다. 이와 달리 케리그마는 하나님의 복음을 회중에서 선포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독교에서 디다케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전과 회당이라는 장소에서 가르치셨다. 특별히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사역을 이어 오셨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rhabbi)또는 선생(didaskale)으로 불렀다. 오래전부터 디다케(The Didache)라고 불리는 논문 형태의 문서가 발견되었고, 그 논문은 너무도 중요해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것이 신약성서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던 사도적 작품들과 나란히 간주될 정도였다. 그 책의 이름은 '사도들의 가르침'이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신명기 6장 6-7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다. 히브리사람들은 교육에 대한 명령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교육하고 있다.<sup>70</sup>

<sup>70</sup> Maria Harris, *교육목회 커리큘럼*, 133-34.

정리하자면, 성경에서 예수님은 교사라고 지칭되었을 만큼 디다케는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였다.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을 디다케라는 표현은 성경을 찾아보면 10회 이상 기록되어 있다. 디다케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통해 제자를 가르치시고 그들을 파송하시고 다시 제자를 삼는 모습을 살펴보면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쉐릴(Lewis Sherrill)의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의 디다케는 당시 유대 회당 교육과 다른 독창적인 것이었다.”<sup>71</sup> 라고 설명한다. 그는 주님의 독창적인 디다케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다. 첫째는, 예수님의 비유이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선포하실 때 주로 비유를 사용하셨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다 쉽게 설명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둘째는, 논쟁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논쟁을 통하여 명확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신다. 셋째는 도제이다. 예수님께서서 제자를 세우실 때도 도제식 교육방법을 사용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예수님께서서는 디다케를 말씀하신 것이다

김영래는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제자들에게 상상적 통찰을 가지도록 요청하였다.”<sup>72</sup> 라고 설명한다. 예수님께서서 제자들이 비유로 자주 말씀하셨다. 그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

---

<sup>71</sup> 박봉수, *교육목회의 이해*, 196-97.

<sup>72</sup> 김영래, *기독교교육과 미래세대*, 70.

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상력이라는 통로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다. 영적인 눈이 떠진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다. 이미지를 통해 형성된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 드린 자만이 생명의 기쁨을 따라 행동하고 살아 갈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비유법은 은유와 상징을 포함한다. 정말 예수님의 교수 방법은 신선하고 우리를 놀라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는 비유를 통하여 깊은 진리를 상상하게 하시며 이미지를 그리며 하나님 나라의 참여하도록 초대하시는 분이시다.

김영래는 “기독교교육에 있어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교수 방법이며 특별히 다음세대들을 위한 성경연구에서 그 효과는 더욱 증대된다”.<sup>73</sup> 라고 설명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이미지를 통한 교육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만약 성경교사가 학습자들에게 성경 이야기 가운데 한 사건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지를 물어보자. 학습자들은 그 사건의 이미지를 상상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해보자. 기존에 학습된 정보를 가지고 상상을 하며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 후 교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질문을 던진다. 학습자는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학습자들의 상상력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볼 수도 있다. 정리하자면, 디다케는 주제가 성육화되는 것으로서 그것을 도울 수 있는 교육 형태들은 다양하다.

---

<sup>73</sup> Ibid., 71.

전통적인 교육 형태로서 교의, 전통, 말씀, 등의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전통을 넘어서 보다 넓은 맥락에서 교육의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 가르침은 단지 전통의 전수만은 아니다. 가르침은 끊임없는 재해석과 질문, 분석 등 문제제기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디다케의 과제는 다양한 교육의 형태들을 끌어안는 것이다. 교회의 형태들은 비유, 질문, 드라마, 사례연구 등 다양한 재료들을 가지고 학습자가 자신의 몸으로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성육화 된 형태들로 보다 다양하고 넓은 범위의 형태들로 변화되어야 한다.

#### 케리그마(Kerygma)

케리그마(Kerygma)는 일반적으로 케루소(κηρυσσω)에서 파생된 말로 '설교하다', '선포하다', '선언하다' 등으로 번역되었다. 명사형 케리그마(κηρυγμα)는 선포의 행위자체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메시지의 내용까지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나타난 케리그마는 곧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의미하고 있다.

키텔(G. Kittel)은 "케리그마란 어떤 사람이 왕의 명을 받아 대중 앞에서 선포함과 같은 것"<sup>74</sup> 이라고 정의한다. 즉 기독교의 설교가가 비기독교 세계에 대하여 좋은 소식 즉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전파하는 것이 케리그마라는 것이다.

볼트만은 "신약 문서들의 저술이 초기교회의 선포의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

<sup>74</sup> 문상기, 케리그마와 현대설교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6), 21.

결과적으로 그 문서들 자체가 케리그마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신약문서들의 이면에 놓여있는 역사적인 자료와 초기교회의 케리그마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불명확하고 무 의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75</sup>고 설명한다.

볼트만은 케르그마를 설명하면서 복음서보다 먼저 존재하였다고 말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케르그마의 확대된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하여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건 자체가 케르그마이다.

<표6> 신약성서의 케리그마적 동질성<sup>76</sup>

신약성서	케리그마의 내용
마가복음	사도행전 10장 36절-43절에 나타난 케리그마의 확대형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기사로부터 시작됨(막1:2f) 요단 강변의 세례에서 시작하여 갈릴리 지방에 하나님 나라의 출현을 선포함(막1:14f) / 행 10:37 케리그마의 선언한 바를 예증적으로 확대(막1:16-18)/ 행 10:38 예수의 행적이 유대와 예루살렘 지방에서 행해짐 / 행 10장 십자가 사건 중심의 수난설화(막 8:31-15:47) 예수 사후기록-장사 지낸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고전 15:4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의 패턴을 기본 자료로 반영하고 있음 구약의 완성강조, 예수가 다윗의 후계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족보삽입
요한복음	메시아 예언이 예수에게서 성취됨- 로고스의 성육신으로 구약이 완성 예수가 세례 받으실 때 성전의 기름부음을 받음 / 행 10장 케리그마의 패턴을 따라 요점 강조(예수의 교훈 - 갈릴리 이적 - 예루살렘과 유대에서의 활동 - 고난과 십자가 - 매장과 부활)

<sup>75</sup> Ibid., 84.

<sup>76</sup> A. M Hunter, *설교의 원형과 그 발전*, 채 위 역 (서울: 한국그리스도교문화원, 1992), 138-143.

베드로전서	모든 예언이 복음에서 완성됨(벧전 1:10-12)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죽었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죄 때문에 나무에 달림(벧전 2:21-24, 사 53장, 신 21:22)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은자 가운데서 살아남(벧전 1:3, 21, 3:21) 하나님 우편에 승격됨(벧전 3:22) 최후의 심판과 주로 재림의 때가 임박함(벧전4:5, 17)
히브리서	도입부에 등장하는 예언 성취의 주제 예수는 다윗의 혈통(히 7:14) 예수로 말미암은 큰 구원(히 2:3) 인자(히 2:5ff), 고난과 유혹이 미리 알려짐과 신의에 순종(히 5장, 8장, 10:7) 십자가의 죽음(히 12:2), 죄 때문에 성문 밖에서(히 13:12)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히 5:1ff)/ 행 2:23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히 13:20) 대주제의 우편에 앉으심(히 1:13, 8:10, 12:2) 심판주로 재림(히 9:28, 10:25, 10:37)

마리아해리스는 “선포자(keryx)에게 위탁된 선포 행위라는 헬라적 개념에 기초한 케리그마는 언제나 선포된 내용과 선포하는 행위를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다.”<sup>77</sup> 라고 설명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신약성서의 저자들은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근원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이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말씀이신 예

<sup>77</sup> Maria Harris, *교육목회 커리큘럼*, 154-55.

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이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되었다. 히브리어 다바르(말씀)는 오늘날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역동적인 실체로서 예언자에게 왔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의 소리로서만 생각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비록 비가시적인 현존이긴 하지만, 거의 만져질 만큼 실제적이었다. 다바르(말씀)는 루아흐(영)와 함께 병행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구체적인 형태를 볼 수는 없지만 실존하시며 운행하신다. 그것은 객관적인 실재였고 구체적인 그 무엇이었다. 다바르는 그것을 말한 사람에게 능력을 함께 주어졌다. 이러한 것이 성서 전체에서 특히 이사야 55: 10~12절에서 보다 더 장엄하게 묘사되고 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과중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sup>78</sup>

마리아 해리스는 “오늘의 사회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보다 협소한 형태적이고, 사법적이며 예방적인 개념으로서의 정의가 아니고, 보다 풍성하고 보다 온전한 정의의 의미가 성서 안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sup>79</sup> 라고 말한다. 성서 안에서 정의는 우리의 관계들의 요구와,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우리가 모든 것에 관련되어 있는 진리에 대한 신실성(fidelity)으로 인식된다. 정의를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보

---

<sup>78</sup> Ibid., 157.

<sup>79</sup> Ibid., 159-60.

살핌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인간과 모든 만물들이 함께 누리는 바람으로부터 생겨난다. 그 결과로 우리는 모두 신실한 자들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투쟁과 신실성을 지닐 수 있기 위하여 고무되어야 하는 방식들 신앙은 교회전통의 유산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 유산은 마치 여행에 필요한 음식이나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떡과 같은 것이다.

정리하자면, 케리그마는 복음 선포와 전도로 그 의미를 정리할 수 있다. 케리그마는 복음의 요약 그 자체요,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요, 경우에 따라서는 복음 선포자를 가리키기도 한다. 우리는 복음의 선포 행위인 성교를 통하여 케리그마를 경험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케리그마에 참여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케리그마를 맡기시고, 교회가 케리그마를 선포하고 전하기 원하신다. 교회는 교회 안에 케리그마가 울려 퍼지도록 교회와 세상을 향해 케리그마를 선포해야 한다.

#### 디아코니아(Diakonia)

'디아코니아(Diakonia)'는 명사로 '섬김, 봉사'를 말하며 동사로는 '종으로서의 섬김'을 말한다. 디아코니아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근거를 제공해 주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17절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직접 씻기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섬김의 자세"이다.

마리아 해리스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것이 라든지, 친구처럼 제자들과 하나 됨, 또 인간들을 위해 스스로 핍박 당하시는 모습 (요 15:20)등을 보여 주심으로 종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봉사가 무

엇인지에 대한 참된 의미를 보여 준다.”<sup>80</sup> 라고 설명한다. 구약성서에서의 디아코니아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디트리히 본회퍼가 1994년 나찌 감옥에서 고백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잘 알려 주고 있다.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에만 진정한 교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교회는 우위를 점하는 것이 아닌 도움과 섬김의 차원에서 낮은 곳에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참여해야 한다.”<sup>81</sup>고 말한다. 이러한 내용을 보아 알 수 있듯이 교회는 본질로서 섬김의 봉사는 말씀 증언과 예전과 함께 삶으로 오롯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서 복음의 선포와 함께 사라의 섬김을 통해서도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삶의 자리에서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김한호는 “디아코니아는 선택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목회현장에서 반드시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의 근본 정신이라고 말한다. 교회는 양적인 성장보다 디아코니아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먼저 전하고, 실천해야 한다.”<sup>82</sup> 라고 설명한다. 교회는 ‘성장’(growth)을 말하는 곳이 아니라 ‘진리’(truth)를 말하는 곳이다. 교회가 진리, 진실을 말하면 언젠가는 사회가 교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는

---

<sup>80</sup> 황홍렬, “지역사회봉사를 통한 선교, 선교와 디아코니아”, *선교신학* 5호(2002), 19.

<sup>81</sup> David J. Bosch, *변화하고 있는 선교*, 김병길, 장훈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556.

<sup>82</sup> 김한호, “디아코니아와 예배” (경기: 서울장신대 디아코니아연구소, 2016), 12.

지금 서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학적인 재정립이 필요하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활동에 상응하도록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디아코니아는 통전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디아코니아를 실천하는 교회가 존재함으로써 지역이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신 사역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체계적인 디아코니아 교육목회를 정립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으로 회복되는 목회현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한국일은 봉사에 대해 정의할 때 '섬김, 생명, 실천, 세상'이라는 개념들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봉사는 인간에 대한 그리스도의 약속, 즉 이 땅에 오신 목적에서 찾을 수 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의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말씀에서 나타나듯이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풍성한 삶이 인류가 얻을 약속이다. 그럼 봉사란 인간의 풍성한 삶을 빼앗고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행위이다.

둘째, 섬김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에서부터 찾는다. 마가복음 10장 42-45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사람들보다 높아지거나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신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육신 자기 비움의 행위를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7절에 의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이야기한다. 이와 같이 섬김은 봉사자가 가져야 할 근본적인 태도이다.

셋째, 봉사는 실천을 동반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내용을 몸소 삶으로 실천하셨다.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이 갖지 못한 독특성을 수여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계시와 선포의 책임이다.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인 말 뿐만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증거가 되는 것이다.

넷째, 사회봉사의 현장은 세상이 되어야 한다.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전도만이 아니라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사회봉사를 통한 실천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교회는 종교적인 울타리와 자기중심성의 장벽을 넘어 복음의 진정한 실현을 추구해야 한다.<sup>83</sup>

내용을 요약하면 디아코니아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회복하게 하는 봉사, 그리고 주인이 종이 되는 섬기는 성육신적 봉사, 말씀을 직접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적 봉사, 삶의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관계적 봉사이다. 섬김, 생명, 실천, 세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디아코니아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그리고 실제적 상황을 속에서 강력하게 요청된다.

지금까지 내용을 토대로 디아코니아는 선택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교회가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의 근본정신이다. 따라서 교회는 디아코니아 예배를 선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회의 본질로써 반드시 행해야 할 영역인 것이다. 이를 위하여 디아코니아 교육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갈 다음세대와 성도들을 훈련시켜 나간다면 이들이 속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 아름다운 섬김의 디아코니아로 진정 섬기는 큰 자

---

<sup>83</sup> 한국일, *세계를 품는 교회*, (서울: 장로신학대학교 출판부, 2010), 94-96.

가 될 것이다. 성경에 입각한 그리스도의 근본정신, 디아코니아를 교회에 녹여 낸다면, 교회는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며 섬기는 교회는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 선교적 교육목회의 특징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만히 앉아서 관심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직접 사람들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학생이나 보호자나 현인이 아니라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sup>84</sup> 라고 설명한다. 증인은 예수님의 부활과 기적, 승천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증언이 바로 세상을 구원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성 금요일에 극단적인 희생을 보이셨다. 성 토요일에는 벼랑 끝으로 내려가 죽음과 암흑 속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부활 주일, 그분은 세계를 활짝 여기고 새 창조로 다시 태어나시며, 세상 끝까지 자신을 따르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냉철한 자기 성찰을 통해 끊임없이 본질로 돌아가려는 갱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의 갱신은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참된 제자가 만들어 질 때 비로소 구체화될 수 있다.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 선교적 교육목회이다.

---

<sup>84</sup> Leonard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130.

<표7>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 교회<sup>85</sup>

구분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
초점	파송, 후원, 단기선교	교회 본질로서의 선교
주안점	선교사업, 선교프로그램	선교적 삶
선교지(대상)	해외	해외와 지역사회
강조점	개인구원, 회심	공적 제자도
지향점	개교회 성장	존재하는 교회론
실천방법론	권위주의 방식	성육신적인 방식

교회는 선교 사역을 하며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며 선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좀 더 나아가, 선교를 교회의 수 많은 프로그램 중 하나로 생각하며 섬기고 돕는 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교회의 선교적인 사고와 모습을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육목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선교적 교회는 어떠한 모습일까? 선교적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질문과 답을 찾아가는 교육과정을 통해 선교적 교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상훈은 "선교적 교육목회의 특징은 성도들을 선교적인 공동체로 묶고, 그들이 더불어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sup>86</sup> 라고 말한다. 즉, 교회의 사역은 단순하지만 집중력이 있다. 느슨한 구조와 수평적이며 참여적인 리더십과 다양한 실험과 도전이 있는 사역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 감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 거

<sup>85</sup> 송기태,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 시리즈 34, 기독교연합신문(2014.7.)

<sup>86</sup> 이상훈, *Re Form Church*, 220.

친 세속의 소용돌이가 마치 하나님의 교회를 집어 삼킬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창조적인 접근으로 선교적 열정을 불태우며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선교적 교육목회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게 될 때 희망을 품을 수 있다. 교회는 위기 때마다 흩어지고 다시 모이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며 성장하였다.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지만 그 외형은 시대와 문화의 옷으로 갈아 입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역사와 전통을 유지함으로써 견고 해지는 것이 아니다. 거센 풍파와 같은 세대에 끝없이 도전을 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창의적인 비전을 가지고 발전하며 성장해 왔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날마다 개혁하며 새로워지는 것이다. 과거의 틀에만 얽매어 있다면 건물만 붙잡고 있는 모습이 될 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새롭게 하심을 기억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새로운 모습으로 이 시대의 변화를 이끄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 제 IV장

### 교육목회를 통한 선교적 교회의 사례연구: 세광교회 중심으로

팀 켈러(Timothy Keller)는 “도시마다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종류의 교회들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교회 개척자들은 기존 사역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을 창조해야 한다.”<sup>87</sup>라고 설명한다. 선교적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모델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것은 성장이나 부흥 전략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선교적 교회란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선교에서 찾으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 끊임없이 선교적 행위를 지금도 하고 계신다.

본 논문은 교육목회를 통한 선교적 교회의 구체적인 타개책으로 기존 교회와 지역의 교회가 서로 협력하여 건강한 선교적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 나타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교회는 건강한 목회 생태계가 회복되고 바람직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것을 기대해 본다.

---

<sup>87</sup> Timothy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오종향 역 (서울: 두란노서원, 2016), 30.

## 복음 세우기 운동의 기획 목적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며 지역교회와 함께 성장하는 세광 교회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복음세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구별로 섬길 교회를 선정해 헌신적으로 섬기고 협력하고 있다. 1-4교구는 특색 있는 교회를 선정하여 교구별로 지원하고 있다. 선정된 교회들의 재정과 인적 자원은 물론 목회사역, 영적 지도력 훈련 등 교회 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단순히 재정적인 부문으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 물적 지원과 함께 교구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지원교회에 방문해 섬긴다. 다양한 목회적 훈련과 리더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함으로 특성화 된 교회의 자립을 돕는다.

황해국 목사는 “한국교회는 비슷한 똑같은 패턴으로 성장을 하려고 한다. 다양한 유형과 패턴으로 목회생태계가 복구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연합하고 나눌 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됨을 확신한다. 교구별로 성도들의 특색의 맞는 교회를 선정하고 인적자원, 물적 자원, 영적 자원을 지원하며 함께 건강한 교회 특성화된 교회를 세우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광 교회는 4개의 교구가 각각 특성화 된 교회를 섬기고 있다. 세광교회 1교구가 협력하는 필리핀 분토드 교회는 ‘복음 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2018년 교회 건축과 헌당식을 진행하였다. 현지 필리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우물 만들기 사업, 사랑의 구제품 보내기, 장학금, 선교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한다.

2교구는 군인교회인 25사단 파평산대대 승리교회와 협력하며 복음을 세위가

고 있다. 군대는 복음전파의 황금어장이란 말이 있다. 군 장병들의 신앙성장을 위해 소통하며, 정기적으로 일대일 신앙 상담과 훈련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금순목사는 “세광교회의 아낌없는 지원과 영적 훈련을 통하여 성경적인 사명과 삶의 목적을 다시한번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라고 말하며 “군 장병들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3교구가 섬기고 있는 파주소망교회, 세광 교회와 멘토, 멘티 관계를 유지하며 물질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목회적 차원에서도 협력하고 있다. 특별히 다음세대의 교육과 양육 사업을 위해 기독교대안학교 “허브스쿨”을 세워 초, 중, 고 전체 20명 미만으로 신앙교육, 인성교육, 교과교육 등 다양한 체험중심의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파주소망교회 조기호목사는 “교회가 참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세광교회의 협력과 연합사역으로 부흥을 이뤄가고 있다”고 말했다.

4교구가 협력하는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하늘사다리교회는 2017년 개척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이다. 교구별로 지원하는 구역헌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합구역예배와 문화센터를 지원하며 함께 소통하고 있다. 특별히 가을부터는 문화센터를 오픈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지원 대상 선정

한국교회는 교회의 정책과 지원 대상을 교회에서 선정한 후에 성도들에게 공지하여 협력하는 구조로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성도를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이러한 구조는 전체 성도를 함께 협력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새로운 미래 교회의 대안을 제시하는 레너드 스윗(Leonard Sweet)은 말한다. 그는 드루신학대학원(Drew Theological School)의 석좌 교수였으며 동시에 미국 조지 폭스(George Fox) 대학교의 명예 객원교수로 미래형 목회를 시도하고 있는 교회에 신학적 이론을 제시하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교회 미래 학자이다. 그는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교회를 다음과 같은 EPIC모델을 제시한다.

스윗은 “포스트모더니티를 나는 EPIC 문화라고 부른다. 그것은 경험(Experiential), 참여(Participatory), 이미지(Image-driven), 관계(Connected) 중심의 문화를 의미한다.”<sup>88</sup>고 설명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교우들을 함께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회와 대상을 선정하는 부분을 목회자 중심보다 교구별로 의논하고 세워가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교우들이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교회가 활성화되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

<sup>88</sup> Leonard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역 (서울: 좋은 씨앗, 2002), 62.

## 세광교회 장년교구 복음 세우기 사례

<그림2> 1교구 - 해외 선교지(필리핀 분토드 교회)



### 1교구 복음 세우기 협력교회 - 필리핀 분토드 교회

#### 개요

1교구는 해외 선교지 개척 교회를 건축함으로써 복음을 세워가는 교회의 목표에 매진한다. 더 나아가 해외 선교지의 개척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인재를 양성하도록 한다.

#### 검토 사항

1. 필리핀 네그로스섬, 두마게티에 분토드 교회와 문화 센터를 건축한다.
2. 아웃 리치를 통하여 믿음을 향상 시키며 사역자를 도와 복음을 증거한다.
3.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단기 선교 활동을 통하여 본 교회 학생들과 성도들의 신앙 생활에 도움을 준다.

## 추진 계획(1차)

### 1. 분토드 교회 건축필리핀 현지 행정적 절차 실시 (4-5월) 및 서류제출

- 1교구 기도 구역별 모임, 연합구역예배 및 기도회(연합 구역예배 및 기도회 월 1회)

- 교회 건축 시작(교구 현금 및 지원) (5-10월)

- 페인트 마무리 작업, 참가 및 헌당식(교구 자원 참가자)

- 교회 헌당식 (10월, 23-30 중), 실시

(준비물: 세광 교회 증축 머릿돌, 분토드 교회 교인들과 마을 사람들 나눔의 행사)

- 세광 교회 학생 비전 트립 시행

### 2. 소요경비

- 건축비 및 사택, 전기공사 등 1500만원 예상

## 추진 계획(2차)

### 1. 문화 센터 설립 및 교회건축

- 현지 방문 행정적 절차 파악 (필리핀 3월)

- 비영리 문화법인 설립 절차 1차 서류 접수(3월)

- 2차 서류 접수 예정(4월)

- 1교구 구역별 기도 모임(중보기도, 행정절차 계속 진행, 5-6월)

- 현지 법인 설립(7-10월)

- 문화 교실, 교회 착공 예정(11-2019.2월)

### 2. 소요경비

- 3000만원 예상

## 추진 방법

- 현지 사역자 정국보선교사 협력하여 1교구가 추진
- 태풍, 우기등 안전을 고려한 업무 추진

## 조직

교구장로 - 김홍섭 장로 (협력장로: 홍순도 장로, 협력교역자: 김현준목사)

총무 - 이숙희 권사

회계 - 공보인 권사

서기 - 정구현 안수집사

구역장 - 이미경, 공보인, 임옥선, 임영미, 김은하, 신순천, 최금석,

, 이해정, 이숙희, 홍순도, 정구현, 조혜지,

## 현지이동방법(2가지)

1) 인천공항~마닐라 공항 4시간 30분

(국내선: 마닐라~두마게티 1시간 30분)

2) 인천공항~세부공항

- 국내선: 세부~두마게티 1시간 30분

- 세부항공~남부터미널(BUS 4시간 30분)~ 시블린항~릴리안 항(배 40분 두마게티)

&lt;그림3&gt; 필리핀 분토드 교회 위치



### 1. 필리핀 분토드교회 교구 설명회

필리핀 분토드 교회 건축을 위한 교구 설명회를 진행한다. 1교구 담당 김홍섭 장로가 현지 상황과 진행 사항을 함께 공유한다. 복음세우기의 일환으로 1교구는 해외 선교지를 섬기기로 한다. 현지 정국보선교사와 협력하여 필리핀 두마게티시에 위치한 분토드 교회를 건축하며 이어 문화 교실과 우물 사업, 장학사업으로 하나님의 복음 전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필리핀 현지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물질 자원, 인적자원, 영적 자원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 1교구 성도들과 함께 세부 사항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모색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4> 필리핀 분토드 교회 모습



## 2. 1교구 연합구역예배 및 기도회

세광 교회는 한 주간 동안 구역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가정, 직장, 교회, 등의 장소에 모여서 구역예배를 드린다. 한 주간의 삶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성숙을 도모한다. 매주 목요일, 금요일 오전 11시, 또는 직장구역은 금요일 오후 7시 이후에 구역모임이 진행된다.

1교구 복음 세우기를 위해 1달에 1번 마지막 주 금요일 오전 11시 교회 예배당에 모여 함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드린다. 특별히 필리핀 분토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성전건축과 문화센터, 우물 사업, 장학 사업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심기도를 진행한다. 진행되는 모든 상황을 구역 성도들이 시간을 정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참여한다.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 까지 모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학생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저금통을 깨서 성전건축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평생 소망으로 삼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섬기게 되어서 기쁘다며 그동안 모아 주었던 금액을 헌금하였다. 정확한 목표와 분명한 목적이 제시되었을 때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로 모아질 수 있다. 교회는 경험적, 참여적, 이미지, 관계적인 요소가 분명하게 나타날 때 한 마음으로 모여 큰 에너지를 발산하게 된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나누고 기도하며 협력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다.

사실 전통적인 교회의 교회일수록 활발하고 역동적인 일을 기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복음 세우기 운동을 통하여 교우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협력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새로워지는 영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열리게 됨을 볼 수 있었다.

<그림5> 1교구 연합구역예배 및 기도회



### 3. 사랑의 물품 후원사업 및 필리핀 협력 선교사 초청 예배

1. 수행기간: 2018년 6월 ~ 2018년 8월
2. 사업 지역: 필리핀 두마게티 섬
3. 현지 파트너: 정국보선교사
4. 세부 내용:

#### ① 지역상황

필리핀 두마게티 섬의 주민들과 지역 교우들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외부에서 유입된 자본으로 인해 농민들은 농사지을 땅을 잃고, 생태계 파괴로 인해 어민들 또한 큰 타격을 입었다. 두마게티 지역에는 학교를 제외한 교육 시설 및 아동, 청소년, 성인들을 위한 교양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황이며, 생계에 타격을 입은 주민들은 자녀들을 위한 교육 비용을 감당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 ② 물품 후원사업

두마게티 지역주민들과 분토드 교회 성도와 세광 교회 성도들을 연결시켜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물품 후원사업을 진행한다.

## ③ 협력 선교사 초청예배

필리핀 협력선교사를 초청하여 헌신예배를 드리며 지역상황과 내용을 교회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며 협력하도록 한다.

<그림6> 협력 선교사 초청예배



<그림7> 사랑의 물품 후원사업



#### 4. 헌당예배, 장학금 수여식

1. 수행기간: 2018년 10월 29일 ~ 2018년 11월 3일
2. 사업 지역: 필리핀 두마게티 섬
3. 인원: 교구 담당목사, 장로, 참석을 원하는 성도
4. 역할: 헌당예배 설교자, 기도자, 특송, 사진, 선물 나눔 등
5. 이동경로: 필리핀 에어라인 항공(경유 포함 8시간)
6. 세부 내용:

##### ① 분토드 교회 헌당예배

1교구 성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세워진 필리핀 두마게티 섬에 있는 분토드 교회 헌당 예배를 진행한다. 교회를 대표하여 교구 담당 목사와 장로, 함께 참석을 원하는 성도를 선정하여 준비한다. 현지 교회를 방문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라며 헌당예식을 진행한다.

##### ② 지역 나눔 축제

헌당예배 이후 지역 나눔 축제를 진행한다. 지역 주민을 초청하여 준비한 선물과 음식을 나누며 교제한다. 교회의 헌당예식이 지역의 축제가 됨을 교육하며 더 나아가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한다.

### ③ 장학금 수여식

현지교회 학생들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여 교육사업에 힘쓴다. 더 나아가 교회의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림8> 필리핀 분토드 교회 성전건축



<그림9> 헌당예배 사진



<그림10> 헌당예배 설교



## 2교구 복음 세우기 협력교회 - 25사단 72연대 3대대 승리교회(군인교회)

### 개요

한국교회는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저 출산, 시대 상황의 변화(포스트모던)등 다양하다. 이러한 시대 영혼구원의 황금어장이 있으니 바로 군 부대이다. 군대는 젊은 청년들이 모이는 곳이며 힘들고 지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이 틀림없다.

### 조직

교구장로 - 장종완 장로 (협력장로: 이장희 장로, 협력교역자: 김현준목사)

총무 - 임선빈 안수집사

회계 - 박용희권사

서기 - 석호상 안수집사, 이충영집사

구역장 - 김옥수, 이충영, 이미영(탄현), 최금자(탄현), 박용희, 최애자,

박선영(월당), 임상숙, 황옥임, 김중필, 차영춘, 장정희

### 선정예정지

#### 25사단 72연대 3대대 승리교회

주소: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산 17번지 사서함 95-17호

### 군부대사역 특징

- 1) 부대중심 특수성
- 2) 타문화권 선교지로 이해
- 3) 자비량 선교

### 월별 행사 계획

월	사역내용	비고	후원	행사 예산
3월	삼겹살파티 72연대 지역교회 연합예배			
4월	부활절행사 지역교회와의 연합예배	※4월 22일 예정	※세광교회 방문예배	
5월	위문예배			
6월	선한사마리아주일 1004교회 세례주일			
7월	불모지훈련			
8월	유격훈련			
9월	짜장면데이 사단진중세례	처음시도 계획중	※세광교회 지원요청	100만원
10월	지역교회와의 연합예배		※세광교회 방문예배	
11월	과평산대대 장병의 날 1004교회 세례주일		세례식 ※세광교회	
12월	성탄행사 송구영신예배			

#### 희망하는 후원방안

- 1) 물질적인 후원 - 구역헌금
- 2) 양육팀 파송 - 주일예배 후 새 신자 양육, 군인가족 선교를 위한

#### 구역상담

- 3) 비전(진로)교육 - 강사초빙
- 4) 기타사역 - 짜장면데이, 진중세례식, 세광교회 방문예배 등

#### 4월 15일은 2교구 헌신예배로 방문예배 예정

- 1) 약 45명 정도 이금순목사 외 군인장병 방문하여 특송을 갖습니다.
- 2) 버스차량 지원 및 다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 협력교회 선정 방법

2교구 구역장을 중심으로 부대를 방문하여 답사를 다녀온 뒤 구역성도들과 함께 내용을 공유하며 의견 수렴 후 선정하도록 한다.

<그림11> 복음세우기 교회선정 구역장회의



#### 1. 25사단 72연대 3대대 승리교회초청예배

1. 수행기간: 2018년 4월 22일

2. 사업 지역: 25사단 72연대 승리교회

3. 현지 파트너: 이금순목사

4. 세부 내용:

① 지역상황

군인은 복음전파의 황금어장이라고 한다. 그 만큼 영혼을 구원하기에 가장 좋은 시절이라는 말이다. 군 생활로 지친 장병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며 양육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초청예배

군 지역에서 다소 떨어진 지역으로 이동하여 세광 교회 교우들과 함께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 격려와 위로의 시간을 갖는다. 예배 후 만찬을 준비하여 군 장병들을 격려한다.

③ 양육팀

군인 가족들을 섬길 수 있는 교구 양육 팀과 만남을 갖는다. 지속적인 상담과 영적 돌봄이 이끌어 간다. 군 장병들의 진로를 위한 특강을 준비하여 서로 교류한다

<그림12> 25사단 72연대 3대대 승리교회 초청예배



<그림13> 25사단 72연대 3대대 승리교회 장병 특송



<그림14> 25사단 72연대 3대대 승리교회 단체사진



## 2. 짜장면 데이

1. 수행기간: 2018년 11월 2일
2. 사업 지역: 25사단 72연대 승리교회
3. 현지 파트너: 이금순목사
4. 세부 내용:

### ① 짜장면 데이

군인 장병들의 부대를 직접 성도들과 함께 방문한다. 군 장병들이 평소 맛보기 힘든 짜장면을 만들어 중식을 제공한다. 직접 만든 짜장면을 장병들에게 나누어 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

### ② 사전준비

신선한 재료를 준비하여 장병들의 맛있는 식사를 준비한다.  
군 부대와 협력하여 식당, 주방, 식기들의 사용이 가능한지 체크한다. 식사시간을 정확히 세워 늦어지지 않도록 준비한다.

### ③ 교우협력

교우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특별히 평일 직장출근으로 참석이 어려운 교우들은 사전 준비모임에 참여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음식 준비는 구역장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히 준비한다.

<그림15> 짜장면데이 행사사진





## 2. 장병 위문예배(총동원 전도주일)

### 1) 개요

주제: 25사단 72연대 3대대 승리교회 장병 위문예배

일시: 2019.4.28.(주) 오후 3시 - 4시 30분 (총회 군선교주일)

장소: 25사단 72연대 3대대 승리교회

협력교회: 세광교회 2교구

예상인원: 장병 200명 + 세광교회 60명 = 260명

### 세부사항

시간(오후)	내용	담당자
2:00	교회출발	
30:00-3:20	경배와 찬양	청년부 협조사항
3:20-3:23	중보기도	이장희장로
3:23-3:25	성경봉독	민종욱권사
3:25-3:30	특 송	2교구 일동
3:30-3:50	말씀선포	김현준목사
3:50-3:55	봉헌찬송(50장)	승리교회 장병들
3:55-4:00	축 도	김현준목사
2 부		
4:00-4:15	광고, 행운권 추첨	이금순목사(승리교회)
4:15-5:00	만 찬	세광교회 봉사부

### 2) 2교구 복음세우기 조직

위 원 장: 이장희장로

담당교역자: 김현준목사

총 무: 김중필안수집사

회 계: 박용희권사

찬양 인도: 청년부 찬양팀

### 3) 식사 및 간식

최애자권사, 민종욱권사 (각 구역장): 햄버거, 콜라, 떡볶이, 오뎅, 과일 등

### 4) 인원 역할

부서명	부서장	부서원	역할
총괄 진행부	이장희 (장정희)	차영춘, 김병환	1. 사전 준비 및 전체 진행 2. 장병 위문예배 총괄 진행
회계부	박용희	최금자	1. 예산의 집행 및 정산(200만원)
예배부	김현준 (청년부)	임혁록	1. 방송, 음향장비, 악기관리 2. 찬양팀 구성, 찬양 콘티 작성 3. 각 예배를 위한 장소 세팅 4. 예배 ppt 5. 위문예배 보고 영상
진행부 (운영부)	김중필 (신동길)	박선진, 유정순 이복신, 이성영 권영수, 김지영 백승호, 문명진	1. 위문예배 참가자 명단 2. 차량 섭외 및 차량별 인원 확인 3. 행운권 제작, 선물구입 4. 현수막 제작 (실내, 실외) 5. 테이블 셋팅, 철거 6. 체크리스트
봉사부	최애자 (민종욱)	이미영, 심부섭 안신희, 이화봉 고보경, 권경희 김옥수, 황옥임	1. 식사, 간식 담당 2. 2부 만찬 준비 3. 장병예배 안내

### 4) 논의 사항

부대 협조사항 - 출입자 명단 파악(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

선발대 논의사항 - 예배 준비, 음향체크, 만찬 준비

<그림16> 장병 위문예배 사진



<그림17> 장병 위문예배 특송, 전체사진



### 3교구 복음 세우기 협력교회 - 파주소망교회

#### 개요

다음세대를 양육하는 일은 교회의 사명이며 시대적 요구이다. 파주소망교회는 다음세대를 세워 나가는 특성화된 교회이다. 특별히 다음세대의 교육과 양육 사업을 위해 기독교대안학교 "허브스쿨"과 도서관을 운영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 조직

교구장로 - 김봉신 장로 (협력교역자: 이상운목사)

총무 - 이은숙권사

회계 - 정원양 안수집사

서기 - 장종완 장로

구역장 - 장선애, 이은숙, 노덕성, 김난희, 한경희, 임금순, 김정민, 안옥주,  
김봉신, 이규희, 김정혜, 김경직

#### 선정예정지

파주소망교회

주소: 파주시 온정길 41 이안빌딩 2층(본당), 3층(도서관 겸 식당)

#### 파주소망교회 사역 특징

- 1) 예배
- 2) 도서관
- 3) 기독교 대안학교 "허브스쿨"

월별 행사 계획

월	사역내용	비고	후원	행사 예산
2월	2/13 지원처 답사 2/17 지원처 선정			
3월			매월 80만원씩 선교비지원 시작	
4월	제2회 바자회		*도우미지원	100만원
5월	독거노인 및 장애인 미용 봉사		미용봉사자 재능기부지원	
6월				
7월	기독교대안학교 "허브스쿨"		특강1	
8월				
9월	3교구 헌신예배			
10월				
11월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100만원
12월				

희망하는 후원 사역방안

- 1) 물질적인 후원 - 구역헌금
- 2) 예배 - 파주소망교회에서의 예배
- 3) 기독교 대안학교 "허브스쿨" - 청소년 심리 특강1

논의사항

- 1) 전도팀 지원
  - 일시: 5/3(화) 오후 1시 30분 출발
  - 참여구역: 직장, 가족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

## 2) 파주소망교회 VIP 초청예배

일시: 6/30(일) 오후1시

장소: 파주소망교회 예배장

## 3) 기독교 대안학교 "허브스쿨" 청소년 심리 특강1

강사: 김현준목사

내용: 청소년 심리의 이해

일시: 7/5(금) 오후 3시      장소: 허브스쿨 강의실

## 1. 목회자 멘토멘티 스쿨

1. 수행기간: 2019년 7월 14일
2. 사업 지역: 복음세우기 협력 목회자
3. 현지 파트너: 황해국목사(세광 교회)
4. 세부 내용:

## ① 영적 지도자(Focusing)훈련 세미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독특하게 만들어 가심을 발견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목적, 곧 영적인 지도자로 나를 세우신 존재의 목적과 사역의 목적을 발견한다. 이런 발견을 통해 우리 각자는 자기의 소명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혼자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할 동료집단을 구성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협력하여 성취한다.

## ② 나눔과 교제

다양한 현장에서 사역하는 목회자 가정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어려운 환경과 내용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과 방안을 모색한다. 가족과 같은 분위기로 서로 나눈다.

### ③ 목회자료 나눔

교회 사역에 필요한 자료들을 함께 공유하며 목회현장의 필요를 채운다. 세광 교회의 목회 노하우를 함께 나누며 지 교회현장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그림18> 영적지도자(Focusing)훈련 세미나





## 2. 기독교 대안학교 허브스쿨

### 1) 개요

주제: 기독교 대안학교 "허브스쿨" (청소년 심리 특강1)

일시: 2020.5.1.(금) 오후 3시 - 4시 30분

장소: 허브스쿨 제 1강의실

협력교회: 세광교회 3교구

예상인원: 학생20명 + 세광교회 5명 = 25명

## 세부사항

시간(오후)	내용	담당자
2:00	교회출발	
2:40-3:00	강의실 셋팅	이은숙권사
3:00-4:30	청소년 심리 특강1	김현준목사
4:30-4:50	질의응답	허브스쿨 학생들
4:50-5:00	강의실 정리	3교구 섬김이
2 부		
5:00-6:30	삼겹살 파티	세광교회 봉사부

## 2) 3교구 복음세우기 조직

위 원 장: 김봉신 장로

담당교역자: 이상운목사

총 무: 이은숙권사

회 계: 정원양 안수집사

특 강: 김현준목사

## 3) 식사 및 간식

노덕성권사, 한경희권사 (각 구역장): 삼겹살, 야채, 음료, 식구도구 등

## 4) 인원 역할

부서명	부서장	부서원	역할
총괄 진행부	김봉신	장종안, 김경직	사전 준비 및 전체 진행
회계부	정원양	임금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프로그램부	김현준	김정민	청소년 심리 특강 장소 테이블 세팅 프로그램 준비
진행부 (운영부)	안옥주	김난희	참가자 명단 차량 섭외 및 차량별 인원 확인 행운권 제작, 선물구입 현수막 제작 (실내, 실외) 테이블 셋팅, 철거 체크리스트
봉사부	노덕성	한경희	식사, 간식 담당 2부 만찬 준비 삼겹살 파티 준비

&lt;그림19&gt; 기독교 대안학교 "허브스쿨" 청소년 심리 특강



## 4교구 복음 세우기 협력교회 - 하늘사다리교회

### 개요

지역 주민을 문화사역으로 섬기는 일은 다음세대를 양육하는 일은 교회의 사명이며 시대적 요구이다. 파주소망교회는 다음세대를 세워 나가는 특성화된 교회이다. 특별히 다음세대의 교육과 양육 사업을 위해 기독교대안학교 "허브스쿨"과 도서관을 운영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 조직

교구장로 - 차영춘 장로 (협력교역자: 인성한목사)

총무 - 차상미권사

회계 - 장보근집사

서기 - 정은영권사

구역장 - 정은영, 조무영, 정경남, 임택인, 남선영, 홍미화, 박미주, 안신희,

김봉신, 이규희, 김정혜, 김경직

### 선정예정지

파주소망교회

주소: 파주시 온정길 41 이안빌딩 2층(본당), 3층(도서관 겸 식당)

### 파주소망교회 사역 특징

- 1) 크리스찬 마을 공동체
- 2) 문화사역(문화센터, 플룻교실, 켈트교실, 비즈공예, 수학교실)
- 3) 복음증거(전도활동)

### 월별 행사 계획

월	사역내용	비고	후원	행사 예산
2월	지원처 답사 지원처 선정			
3월			선교비지원 시작	
4월	지역 전도대 파송		전도 봉사자	100만원
5월				
6월	하늘사다리 문화교실 오픈		플룻 퀵트, 비즈공예 재능기부지원	200만원
7월				
8월				
9월	하늘사다리 문화교실 전시회		세광교회 봉사부	200만원
10월				
11월	4교구 초청 연합예배			100만원
12월				

### 희망하는 후원 사역방안

- 1) 문화사역 - 문화센터 컨설팅, 재능기부지원
- 2) 전도 - 지역 전도대 파송
- 3) 4교구 초청 연합예배 - 말씀과 기도

### 논의사항

- 1) 문화사역

일시: 2018년 6월5일(화) 오후 1시 30분 출발

내용: 문화센터 컨설팅, 재능기부지원

- 2) 전도대 지원

일시: 2018년 4월12일(목) 오후1시

장소: 하늘사다리교회 일대

### 3) 초청 연합예배

강사: 인성한목사

일시: 2018년 11월11일(주) 오후 2시      장소: 하늘사다리교회 예배당

## 1. 문화사역

1. 수행기간: 2018년 6월 5일
2. 사업 지역: 하늘사다리교회 일대
3. 현지 파트너: 신광식목사
4. 세부 내용:

### ① 문화센터 컨설팅

세광 교회는 문화사역을 통해 교회의 성장을 이루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현재는 100기가 진행 중에 있으면 지금까지 다녀간 수강생만도 5만 1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문화센터를 컨설팅 사역을 통하여 문화사역을 활성화하게 한다.

교회를 개방하고 교회가 가진 인적, 공간적, 물리적 자원을 활용하여 간접 선교의 기회를 갖는다. 지역 주민의 자기 발전과 자아 성취, 평생 교육의 뜻을 펴도록 돕는다. 건전하고 유익한 활동을 제공하며 수강생의 자기 성숙의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 ② 재능기부지원

지역주민을 섬기는 문화선교로서의 문화센터에 필요한 강좌와 강사진

을 지원한다. 무료강좌는 수강생들이 쉽게 빠지게 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저렴한 회비로 양질의 강좌를 진행하며 섬긴다.

### ③ 후원

강좌에 필요한 물품과 자원을 후원하여 문화센터가 온전히 설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다. 일회적인 후원이 아니라 지속가능하며 연속적인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림20> 하늘사다리교회와 교인들



<그림21> 재능기부지원



<그림22> 문화센터 플룻 교실



<그림23> 문화센터 문화교실 전시회



## 2. 전도대 지원

1. 수행기간: 2018년 4월 12일 오후1시
2. 사업 지역: 하늘사다리교회 일대
3. 현지 파트너: 신광식목사
4. 세부 내용:

### ① 전도사역

하늘사다리교회는 매주 전도대를 파송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힘쓴다. 그러나 적은 인원으로 매주 전도대를 파송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협력하기 위해 세광 교회는

전도대를 파송하여 정기적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협력한다.

## ② 영혼을 위한 기도

교회와 영혼을 위한 기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늘사다리 교회와 지역 주민들의 영혼을 위한 중보기도를 실시한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며 지역의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한다.

## ③ 전도물품 후원

전도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함으로 재정적 지원, 물적 지원을 한다. 각 계절마다 필요한 전도 물품을 후원한다. 예를 들어 여름이면 시원한 음료수나 손 선풍기를 준비하며 겨울이 되면 따뜻한 차와 손 난로를 후원한다. 단 교회의 요청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특성에 맞는 제품을 보내 후원하도록 한다.

<그림24> 전도대 파송



### 3. 4교구 초청 연합예배

#### 1) 개요

주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일시: 2018.11.1.(주) 오후 2시

장소: 하늘사다리교회 예배방

협력교회: 세광교회 4교구

예상인원: 하늘사다리교회 50명 + 세광 교회 30명 = 80명

#### \* 세부사항

시간(오후)	내용	담당자
1:00	교회출발	
1:40-2:00	환영의 시간	신광식목사 (하늘사다리교회)
2:00-2:20	경배와 찬양	하늘사다리 청년회
2:20-2:45	말씀선포	인성한목사 (세광교회)
2:45-2:50	봉헌기도	설교자
2:50-2:55	교회소식	신광식목사 (하늘사다리교회)
2:55-3:00	축도	인성한목사 (세광교회)
2 부		
3:00-4:00	교제의 시간	세광교회 봉사부

## 2) 4교구 복음세우기 조직

위 원 장: 차영춘장로

담당교역자: 인성한목사

총 무: 차상미권사

회 계: 장보근집사

## 3) 4교구 봉사위원

정경남권사, 정은영권사 (각 구역장): 다과, 과일, 음료, 선물 등

## 4) 인원 역할

부서명	부서장	부서원	역할
총괄 진행부	차영춘	신재찬	사전 준비 및 전체 진행
회계부	장보근	남선영	예산의 집행 및 정산
교제의 시간	문해동	이동진	공동체 훈련 레크레이션
진행부 (운영부)	손남섭	최세하	참가자 명단 차량 섭외 및 차량별 인원 확인 행운권 제작, 선물구입 현수막 제작 (실내, 실외) 테이블 셋팅, 철거 체크리스트
봉사부	노덕성	한경희	식사, 간식 담당 2부 만찬 준비 삼겹살 파티 준비

&lt;그림25&gt; 4교구 초청 연합예배



## 5. 세광교회 다음세대 복음 세우기 교회학교 사례

### 개요

2020년 고등부 가을(새 학기)수련회는 새로운 온라인(비대면)방식으로 준비하여 진행됩니다. 신앙성장과 영적 부흥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온라인(비대면) 집회를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수련회 기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등부 가을(새 학기)수련회 주제는 “말씀으로 유턴(믿음의 근육을 키우자)”입니다. 이주제가 선정된 이유는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으신 말씀 되신 예수님께 돌아가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의 느

헤미야의 지도력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대안적 모습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술을 관리하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유대의 상황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고레스 칙령 이후 귀환한 이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했지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영적인 대혼란 상황이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전해들은 유대의 현실은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은 이방 여인과 통혼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위협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느10:28-30), 안식일에 상업이 횡행하였으며(느10:31), 성전을 사모함이나 존중감도 사라졌습니다.

백성은 성전세와 십일조를 드리지 않아서 레위인들은 성전 관리를 태만히 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참담한 유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왕에게 아뢰어 자신의 고위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BC 445년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여 여러 가지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건축을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일대 영적 쇄신을 일으킨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개혁인물인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입니다.

청소년 시기는 인생의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 느헤미야와 같은 지혜의 리더십을 배우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청소년으로 성장하기 될 것입니다.

### 고등부 수련회(온라인) 진행 안내

1. 주제: 말씀으로 유턴(부제: 믿음의 근육을 키우자)
2. 성구: 느헤미야2:17, 엡5:26-27

3. 일시: 2020년 9월6일(주) ~ 9월 13일(주)/ 2주간

4. 장소: 각 가정

### 목표

-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
- 신앙의 훈련, 섬김의 훈련
- 정체성 확립과 방향성 정립
-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경험

### 9/6(주일)

- 찬양 콘서트, 말씀의 산책, 특별활동1(비전로드맵)
- 아이스브레이킹

### 9/12(토요일)

- 말씀의 산책
- 온라인 기도회
- 특별활동2(뉴트로 천로역정4-5코너)
- 아이스브레이킹

### 9/7-9/12(평일)

- 내가 만난 하나님의 말씀, 말씀암송

- 세광 GIVE & RACE: 교사와 학생이 한 주간 동안 걸으면서 건강도 챙기며  
어려운 해외 이웃을 후원

### 복음세우기 교회학교

#### '세광 기부 앤 레이스' 진행 계획(안)

#### 1. 진행 일정

- 2020.09.07(월) - 09.12(토)
- 09.12(토) 오후4시 호수공원 1바퀴

#### 2. 진행 방법

- 학생과 교사가 일주일 동안 하루 7천보 걷는다.
-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인증샷을 올려 확인한다. (도우미 참조)
- 학생들은 5천원~1만원씩 기부를 하며 교사는 자율적으로 기부한다. (9/6(주),  
9/13(주) 2회)
- 학생들이 홍보 영상과 기부함을 만들어 참여를 권장한다.

○ 기부금은 어려운 해외 선교지에 기부하며 학생들은 동참한다.

제목	세광 기부 앤 레이스					인증방법
평일	9월7일 (월)	9월8일 (화)	9월9일 (수)	9월10일 (목)	9월11일 (금)	단톡방 인증
목표	학생, 교사, 7천보 걷기					
주말	9월12일(토)					
목표	4시에 호수공원에서 모여서 1바퀴를 걷는다 (우천시 우비 착용)					

○ 학생들의 참여율에 따라 선교비가 차등 지출된다.

### 3. 주요 내용

진행사항	
교사, 학생 5일간 7000보 성공시(2/3)	50만원
교사, 학생 4일간 7000보 성공시(2/3)	40만원
교사, 학생 3일 이하 성공시(2/3)	30만원

### 4. 기부 대상

- 태국 남부 꼬리비 장준우선교사(The Bridge of Hope)
- 코로나19로 생계활동이 어려운 5가정 지원 사업
- 희망다리 프로젝트 선정(5가정)

## 5. 세부사항



교사	학생
김현준 목사님	최현준 이철준 윤홍규 황동혁 (4명)
임택인 선생님	임혜지 김현지 김시연 (3명)
홍충의 선생님	정예진 김소원 최성령 황시현 (4명)
이재필 선생님	이수정 신정원 계형진 김은성 (4명)
강명구 선생님	배지현 손연송 박이경 류원선 (4명)
임의택 선생님	백신영 한승희 윤홍재 (3명)

## 6. 소요 예산

수입		지출	
과목	예산액	과목	예산액
선교비	500,000	희망의 다리 프로젝트 지원비(5가정)	1,500,000
학생 기부금	500,000		
교사 기부금	500,000		
합계	1,500,000	합계	1,500,000

&lt;그림26&gt; 기부앤레이스 로고



## 6. 기부 앤 레이스 사역보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두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 거리두기 가운데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각 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 7천보(아프리카 아이가 물을 길러 가는 거리)를 걸으며 선교지 어려운 가정을 생각하며 걸었다. 무더운 날씨와 학업 그리고 각자의 스케줄이 다르지만 SNS 상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인증샷을 올리며 함께 2주간을 보냈다.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프로그램 기획의 단계, 실행의 단계, 모든 요소마다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해외 5가정의 생계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었다. 어려운 환경가운데 협력해 준 세광 교회 고등부 학생과 교사에게 감사의 글을 전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였다.

## &lt;그림27&gt; 감사의 글

## 1. 감사의 글

일산 세광 교회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남부 끄라비에  
서 사역하고 있는 장준우 선교사입니  
다.

먼저 이번 희망다리(The Bridge of  
Hope) 프로젝트에 함께 동역해 주심  
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  
여 힘들고 어려움중에 있는 성도님들  
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께서 김현준 목사님을 통하여 일산 세  
광 교회 고등부에서 함께 하신다는 말  
씀을 듣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

다.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생  
명을 살리는 걸음이었음을 기억하십  
시오.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5분의 성  
도님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  
니다. 프로젝트에 함께 하신 분들께  
서 '주님께서 응답하셨어요'라는 말  
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집니다. 하나님  
의 역사하심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선교사이십니다. 하  
나님의 나라 확장과 끄라비에 역사하  
심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 잠언 16장 9절 말씀



&lt;그림28&gt; 기부 앤 레이스 사역 사진

# THE BRIDGE OF HOPE

## 프로젝트 참여자 1. 빨미



빨미 성도는 3자녀를 홀로 키우는 어머니입니다. 그라비 프로 축구단에서 일하시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일자리라 파트타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평소엔 화분과 화단 가꾸시는 걸 즐겨하셨는데 이 프로젝트로 인하여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시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화분과 분재를 판매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최근에는 멀리 방콕과 그라비에서 주문이 들어와 즐거이 일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항상 웃으며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합니다. 집에서 교회까지 오토바이로 40분 거리지만 항상 기쁨으로 기도회와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 THE BRIDGE OF HOPE

## 프로젝트 참여자 2. 썸



썸 성도는 오래전에 심장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직장을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땅한 직업이 없이 여러가지 일들을 잠깐씩 하면서 지냈었는데 이번에 희망다리 프로젝트를 통하여 사탕수수 주스와 어린이 간식을 팔게 되었습니다. 도로 길가에서 장사를 합니다. 시원한 사탕수수 주스는 무더운 태국의 날씨는 이기는데 참 좋은 음료수입니다. 최근에 장사를 시작하고 나서 비오는 날이 너무 많이 아직은 안정적이지 않지만 자신의 사업을 한다는 기쁨에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 6. 다음세대 복음 세우기 설문지

## 설문지

안녕하세요?

본 질문지는 '2020 가을(새학기)수련회'에 진행된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구성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유익한 점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앞으로 더욱 알찬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각 문항에는 옳고 그른 정답이 없습니다. 모든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전반적인 통계 수치의 경향성 정도를 파악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평소 생각하던 것을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13일  
세광교회 고등부

※ 2020년 수련회에 대한 문항으로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항목에 √표 체크해주세요.

문항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이번 수련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나요?					
2. 성서학습은 어떠했나요?					
3. 경배와 찬양은 어떠했나요?					
4. 온라인 비전로드맵(특별활동1)은 어떠했나요?					
5. 온라인 뉴트로 천로역정(특별활동2)은 어떠했나요?					



※ 다음은 응답자 배경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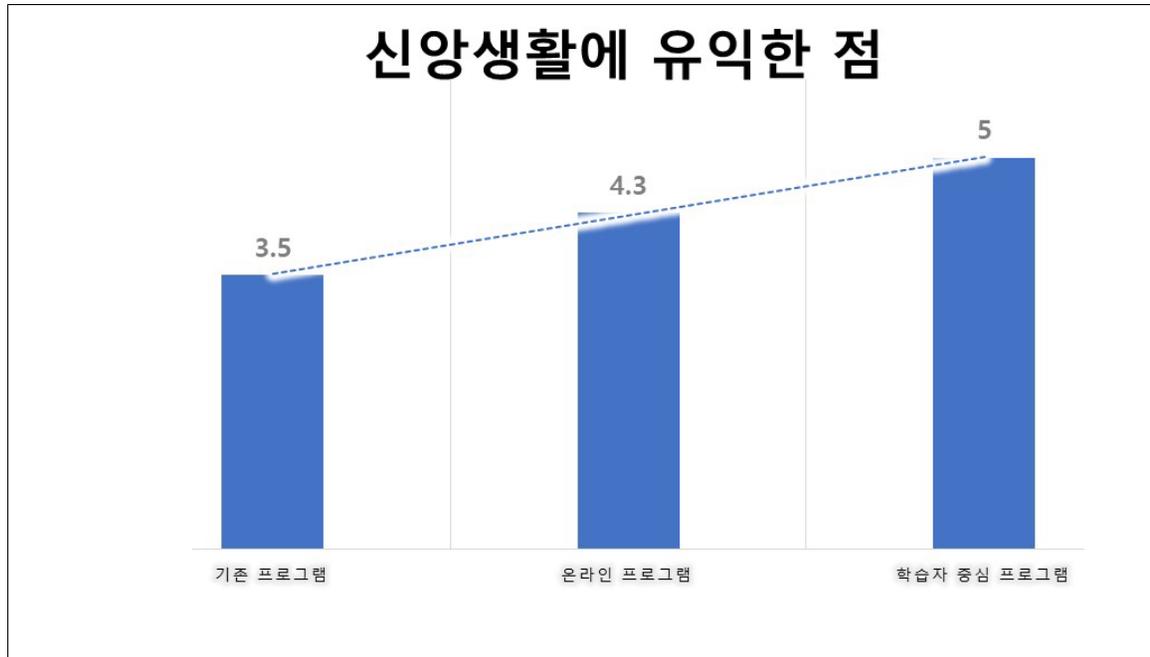
1. 성별: 남(        )    여(        )
2. 학년 혹은 연령: (        )학년, 만(        )세
3. 세광교회 포함 교회 다닌 총 년수: 약(        )년

♣ 수고 많으셨습니다 ♣

### 7. 다음세대 복음 세우기 설문평가

다음세대 복음 세우기 설문평가에는 50명이 응답하였다. 수련회에 참석한 학생과 교사가 대다수였고 연령대는 10대와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50대 교사도 참석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이번 수련회가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었다면 어떠한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요소인지를 물었다. 질문의 영역은 기존 프로그램, 온라인 프로그램, 학습자 중심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lt;표8&gt; 다음세대 복음세우기 신앙생활의 유익



수련회를 이후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5점 만점에 기존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다는 반응은 3.5점을 나타냈으며 온라인 프로그램은 4.3점, 학습자 중심 프로그램은 5점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가 참여하고 계획한 프로그램이 유익하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해준다.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며 신앙 성숙을 위한 내용들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원리는 반영한 EPIC모델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게 됨으로 신앙의 성숙을 도울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 제 V 장

### 세광교회 복음 세우기 운동 연구 평가

#### 세광교회 복음 세우기 운동 참여자 심층인터뷰

##### 인터뷰 개요

본 장에서는 앞에서 밝힌 “복음세우기 운동”이 개인 신앙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인터뷰를 통하여 살펴보고 선교적 교회론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적용해 본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세광 교회 장년교구 담당 장로, 남녀 집사, 청년과의 실질적인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선교적 교회를 위한 교육 목회를 유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주요 부분들을 제시하려고 한다.

인터뷰를 통해 얻어진 내용의 결론은 선교적 교회와 교육 목회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나아가 건강한 목회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바라본다. 인터뷰의 내용은 교회의 다양한 연령과 직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길 바란다.

상담자: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세광

교회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복음 세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새 가족 교구를 제외한 4개의 교구에서 특색 있는 교회를 선정하여 교

회의 성장과 자립을 도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데요. 대화를 통해서 선교적 교회를 위한 “복음 세우기 운동”의 경험을 자유롭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장로1: 저는 세광 교회 시무장로로 1교구를 섬기고 있는 ○○○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지는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교회 개척 초기부터 현재까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집사: 반갑습니다. 저는 301구역에서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는 ○○○입니다. 작년부터 구역장으로 훈련 받고 세워져 301구역을 기쁨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매주 구역원들과 함께 구역예배와 나눔의 시간을 갖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섬기고 싶습니다.

남집사: 안녕하세요. 직장구역을 섬기는 ○○○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청년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하여 지금은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평일에는 IT분야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퇴근하고 저녁에는 직장구역에서 젊은 부부들과 함께 구역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1: 저는 청년 공동체에서 찬양팀을 섬기고 있는 ○○○입니다. 청년부 찬양팀 팀원들과 함께 매주 4부 예배(청년부 예배) 찬양인도를 하고 있

습니다. 특별히 교회 장년들과 연계되어 연합 사역도 진행하기도 하였  
습니다. 대학교 4학년 졸업반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자: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만나 세광 교회에서 사역한지가 5년  
이 되었네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 동안 많은 사역들이  
있었는 대요. 여러분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역이 있으셨나요?

장로1: 네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사역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2018년  
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음 세우기 운동"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었고 다양한 목회 현장을 협력할 수 있어서 기억에 납니다.

남집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주말에는 보통 주일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음 세우기 운동"을 통하여  
주변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교회와 함께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청년1: 네 저도 기억에 납니다. 2교구에서 지원하는 군 교회가 있습니다. 청년  
부 찬양팀을 초청하여 특별 예배를 인도하였는데요. 지역에서 멀리 떨  
어진 군 장병들을 위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군 시절도 생각  
나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상담자: 아 그렇군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음 세우기 운동에 어떻게 참  
여하시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자유롭게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합니  
다.

남집사: 네, 저는 담임목사님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

시며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펼쳐  
 가지 위한 방법으로 “복음 세우기 운동”을 말씀하셨습니다. 기획의 단  
 계에서부터 성도들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내용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  
 다. 그리고 주변의 특색 있는 교회를 선정하여 함께 협력하고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집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복음 세우기 운동”은 선교  
 적 교회를 위한 교회 전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신도 중심으  
 로 참여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정체성이  
 선교라는 사실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로1: 평신도 중심의 교회, 건강한 교회로 갱신하기 위해 “복음 세우기 운동”  
 의 필요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세미나를 열어 그 필요성  
 을 단계별로 교육하였습니다. 구도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경험하며 교회의 본질인 선교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상담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음 세우기 운동이 신  
 앙생활에 주었던 유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까요?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집사: 그럼 제가 말하겠습니다. 보통 저희 같은 성도는 섬기는 교회 중심으  
 로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함께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복음 세우기  
 운동을 통해서 다양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협력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구  
 체적인 예를 들자면, 4교구가 지원하는 하늘 사다리 교회에서 문화교

실을 진행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문화교실을 신청하여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수업을 다 마친 후에는 시간을 정해서 전사회도 하였습니다. 그 중 수업을 받은 학생 중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쁜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장로1: 교회에서 진행되는 대다수의 사역은 교역자나 당회 중심으로 의논하고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복음 세우기 운동은 철저히 평신도 중심으로 섬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주변 교회를 선정하고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하면 좋을지를 의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가 활성화되며 평신도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됨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로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며 다른 차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청년1: 청년 공동체와 장년 교구가 함께 작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현장예배를 하지 못하게 된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핸드폰 기기로 온라인 예배를 성도들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릅니다. 작지만 함께 협력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뿌듯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담자: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유익한 “복음 세우기 운동”을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장로1: 네, 이번엔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의원을 운영하시는 ○○○집사 의료봉사, 학원을 운영하시는 ○○○집사의 교육지원,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집사의 미용봉사 등으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집사: 저는 2교구가 지원하는 군인교회 장병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제자훈련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문하여 위로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자랄 수 있도록 제자훈련부를 파송하여 신앙의 훈련을 도우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집사: 1교구가 지원하는 해외 선교지 분토드 교회의 자립과 성장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학사업, 교육사업, 취업사업으로 협력하여 교회의 젊은 인재를 양성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상담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며 대답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복음 세우기 운동"을 평가하고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지 각자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남집사: 저는, 주변 교회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역을 협력할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말한다면, 세광 교회 내에서도 복음을 세워 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사역지와 협력하는 방향도 유익하지만 교회 내부를 살펴보고 소외된 계층이나 다음세대를 양육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여집사: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복음 세우기 운동을 통해 교회의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교회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교회학교에 여러 부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학생들도 스스로 복음 세우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나이부터 지역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섬길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기독교 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청년1: 네 맞습니다. 저도 복음 세우기 운동으로 여러 교회를 섬기는 사역에 협력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년 교구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후배 학생들과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업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만 시간을 내어 함께 동참하게 될 때 저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장로1: 저는 복음 세우기 운동을 통하여 주변 교회와 해외 선교지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돕는 사역을 통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교회학교 학생들도 함께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사역을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협력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신앙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시간을 내 주셔서 교회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지난 사역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평신도 중심의 사역이 중요합니다. 특

색 있는 교회를 살펴보고 협력하여 건강한 교회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교회의 본질인 선교에 방향성을 두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하고 수정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교회를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협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결과분석

인터뷰는 세광교회 “복음 세우기 운동”에 참여한 장로, 남녀 집사, 청년과의 대담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교회의 다양한 직분과 연령, 성별, 직업을 고려하여 인터뷰 대상자들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각자의 관점에서 참여하고 경험한 복음 세우기 운동을 평가하고 어떠한 신앙적 유익의 효과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선교적 교회를 위한 타개책으로 세광교회는 “복음 세우기 운동”을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여러 형태의 목회 현장과 협력하여 인적자원, 물적 자원, 영적 자원을 지원하며 교회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같은 비전

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협력자가 필요하다. 그 중 가장 큰 협력자는 교회 내의 평신도들을 이다. 그래서 복음 세우기 운동의 주체가 평신도가 될 수 있도록 교육목회의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우선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세미나를 진행하여 성도들에게 그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 진행하였다. 교육을 받은 성도들은 교회의 본질인 선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교육목회는 구체적인 타개책을 실행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며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는 데 상당한 설득력을 준다.

복음 세우기 운동은 평신도 중심의 사역을 지향하는 데 효과적이다. 각 교구마다 특색 있는 교회를 선정하여 방문하며 협력하는 모든 일을 평신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기획의 단계에서부터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논의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음을 알 수 있었다.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으로 교회는 더욱 활성화 되었고 다양한 목회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었다. 기존 교회에서 볼 수 없었던 형태의 목회 환경을 돌아보고 함께 협력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으로 보며 은혜를 받아 신앙의 유익이 되었다고 말한다. 해외 선교지를 지원하는 1교구는 구역 헌금을 모아 매달 선교지에 보낸다. 교회가 세워져 헌당예배를 드리기 위해 함께 협력할 자비량 성도들을 모집하였다. 많은 성도들이 자비량으로 함께 헌당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자원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4교구는 하늘 사다리교회와 협력하여 문화교실을 만들었다. 다양한 문화 강좌를 만들어 지역 주민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으로 진행되었다. 평신도를 파송하여 문화 교실 강사로 지역을 섬길 수 있게 협력하는 사역이 진행되는 모습을 발견했다. 다른 교구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평신도 중심의 사역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내용과 같이 복음 세우기 운동은 평신

도 중심 사역으로 진행되었다. 선교적 교회를 위한 타개책으로 실시한 복음 세우기 운동은 평신도를 깨워 적극적인 복음 사역의 주체가 되게 함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복음 세우기 운동은 선교적 교회를 위한 교육목회의 모범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장년 교구 중심으로 주변 지역 교회와 협력하는 사역을 진행하며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웠다. 다만 교회학교 학생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이 되어야 한다. 장년 중심의 사역에서 다음세대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다.

인터뷰를 통해 얻은 결론은 선교적 교회를 위한 교육목회는 평신도 중심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평신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역의 현장에 적용할 때 교회는 활성화되었다. 협력하는 교회들도 보다 많은 인적자원, 물적 자원, 영적 자원을 지원받아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 앞으로 연구할 과제는 건강한 목회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목회 현장이 있어야 한다. 이를 함께 협력하며 세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광 교회 복음 세우기 운동을 통해 교회 생태계가 회복되는 희망을 가져본다.

## 필자의 평가

세광 교회 복음 세우기 운동은 성경적인 교회,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성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기적인 교회의 모습을 지향한다. 새 가족 교구를 제외 한 4개의 교구는 각자 특색 있는 교회를 선정하며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교구는 해외 선교지를 선정하여 섬기고 있다. 필리핀 두마게티 지역에 분토드 교회를 세워 헌당 예배를 드렸으며, 문화센터, 우물 프로젝트,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교회는 빠르게 성장하며 지역을 섬기고 인재를 양성하며 하나님의 복

음을 전파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고 있다. 필리핀 협력 정국보 선교사는 “세광교회 1교구 성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으면 지역 복음화의 기지로 건강히 세워져 간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1교구 성도들은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며, 또 다른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일에 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과 부흥,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더 물질 자원, 인적 자원, 영적 자원으로 협력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2교구는 25사단 72연대 3대대 승리교회(군인교회) 선정하여 협력하고 있다. 군 시절은 영혼구원의 황금어장이라고 한다. 젊은 청년들을 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었다. 승리교회의 오래된 부속시설을 교회의 성도들이 직접 찾아가 노후 된 시설을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부대와 협력하여 장병들이 부대에서 쉽게 먹을 수 없는 짜장면을 준비하여 “짜장면 데이” 라는 명칭으로 위로하는 시간을 준비하였다. 부대 많은 장병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었다. 총동원 전도 주일에는 2교구 성도들이 부대를 방문하여 경배와 찬양, 말씀선포, 식탁의 교제를 하였다. 버스를 타고 부대를 방문하며 사전 준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었다. 한 영혼을 기도로 준비한 신우회 장병들이 부대내 장병들을 초청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로운 사역이었다. 승리교회 이금순목사는 “세광 교회 2교구 성도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협력으로 군 교회와 장병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한다.

3교구는 파주소망교회를 선정하여 교회와 기독교 대안 학교 “허브스쿨”을 물심양면으로 돕는다. 다음세대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은 중요한 사역이다.

과주소망교회는 기독교 대안 학교 “허브스쿨”을 통하여 20여명의 학생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사역을 한다. 건강한 기독교 학생을 양육하기 위해 청소년 심리 특강을 지원하여 청소년 기 학생들의 건강한 비전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어서 멘토 멘트 스쿨을 통하여 목회의 비전과 방향성을 다시 한번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을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주소망교회 조기호목사는 “멘토 멘티 스쿨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말한다. 공동체에서는 건강한 리더가 중요하다. 목회자를 위로하고 교육하여 분명한 비전을 발견함을 보게 되었다.

4교구는 하늘사다리교회를 선정하여 협력하였다. 원활한 문화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문화센터 컨설팅 사역과 성도를 파송하여 강좌를 진행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문화교실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을 섬기게 되었다. 교회는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방문하고 정착하게 됨을 볼 수 있었다. 하늘사다리교회 신광식목사는 “세광 교회 4교구 성도들의 협력과 지원을 통하여 문화교실을 열어 지역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된 4교구 복음세우기는 하늘사다리 교회 뿐만 아니라 세광 교회 4교구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활성화되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세광 교회 복음 세우기 운동은 다양한 지역과 교회를 교구별로 선정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선교적 교회를 위한 교육목회를 고민하고 있는 교회에게 좋은 사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회 현장은 모두가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될 수 없으며, 목회 현장은 다양한 목회생태계를 구축하고 특색 있는 교회와 협력하여 스스로 자립에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복음 세우기 운동은 전통교회에는 열정적인 동력을 불어넣는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므로 교회의 역동을 일으키게 된다. 복음 세우기 협력 교회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영적 자원을 지원받으며 자립하며 성장할 수 있게 됨을 보게 되었다. 복음 세우기 운동은 전통교회와 다양한 패턴의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공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건강한 모델이 됨을 확신한다.

### 당회원의 평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적인 공동체이다 교회는 생명체이다. 사람을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 버리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교회도 생명체로서의 통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론은 말 그대로의 이론 이라기 보다는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건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교회의 활성화 방향도 마찬가지이다.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첫째,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둘째,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중요하다. 셋째, 성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기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선교적 교회와 교육목회의 실천으로서 복음 세우기 운동은 다양하고 건강한 목회 생태계를 지향하며 전통교회와 협력을 지원받는 교회 모두 성장하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선교적 교회의 관점으로 다양한 형태의 교회를 섬기고 세우며 협력하는 일에는 모두 다 긍정적인 평가와 반응을 내렸다. 각 교구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교회의 역동성을 느낄 수 있었으며, 활발한 복음 세우기 운동을 위하여 기도 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에 집중하면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었으며

지역 교회와 다양한 교류 협력 활동을 통하여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였다.

앞으로는 교구 별로 섬기는 일을 확대하여 교회학교와 다음세대 등 다양한 목회현장을 발굴하여 협력하는 일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장년 교구 중심의 활동을 교회학교 각 부서 차원으로 도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생들도 누군가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협력할 수 있음을 몸으로 배우는 교육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우리 교회만을 위한 목회와 사역이 아니라 범위를 확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협력하고 연합하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성도들의 평가

복음 세우기 결과 발표회 및 인터뷰 내용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긍정적인 평가의 내용이 많았다. 지원 교회를 선정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논할 수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말하였다. 전통교회의 특성상 교회 내의 프로그램과 예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다. 그러나 복음 세우기 운동을 통하여 협력교회와 원활한 교류 활동으로 다양한 목회현장을 볼 수 있어 좋았다고 말하였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헌신과 수고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한다. 평신도 중심으로 진행된 복음 세우기는 많은 교우들과 협력하며 교체할 수 있었으며 구역을 넘어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었다고 말한다.

다만 장년 교구 중심으로 진행되어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평가한다. 왜냐하면 교회학교 학생들도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함께 진행한다면

신앙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유익할 것이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의 신앙의 주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되어서 성도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평가하였다.

정리하자면, 복음 세우기 운동은 교회의 잠재된 성도들을 깨우는 좋은 사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목회자 중심의 교회에서 성도는 협력자로 지원하고 협력하는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복음 세우기 운동으로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 전환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되었다. 다양한 목회의 생태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인적자원, 물적 자원, 영적 자원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평신도 중심으로 연합하게 될 때 놀라운 원동력이 발생하게 되어 교회와 목회 생태계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모델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 제 VI 장

### 결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적인 공동체이다. 마치 사람을 육체와 영혼으로 분리해 버리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교회도 생명으로서의 통전적인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는 생명체로서의 건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교회의 활성화 방향도 마찬가지이다. 역동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을 전하는 일은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역을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주는 유일한 통로이다.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의 사명이 있다.

선교적 교회론은 교회의 본질 자체를 선교로 삼아야 함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귀한 기여를 하였다. 선교적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며 이 세상을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변화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목표를 위해 두 차원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지역 교회가 먼저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의 갈등, 분쟁, 반목, 분열 등으로 교회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정체성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말씀하셨다. 이어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의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6) 고 명하셨다. 즉 교회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해야 한다.

두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림의 차원은 지역사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 아버지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을 통해 교회의 최종적인 선교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 형성’될 것이다.

본 논문은 선교적 교회론에 있어서 지역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교회는 지역을 품고 하나되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은 이러한 지역을 품는 모습을 볼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자신이셨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지역을 섬기고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상을 쫓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본 논문에서 소개한 “복음 세우기 운동”을 통한 다양한 목회 생태계의 회복을 연구하는 목회 현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I 장 서론에서는 선교적 교회를 위한 교육목회에 대한 연구의 문제제기와 연구 목적, 그리고 연구 방법과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II 장에서는 선교적 교회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며, 선교적 교회론의 태동과 정의,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본 선교적 교회론, 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이론을 설명한다.

III 장에서는 선교적 교육목회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교육목회의 정의, 필요성, 특징을 설명하며 선교적 교회를 위한 교육목회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IV 장에서는 선교적 교회를 위한 교육목회의 타개책으로 세광 교회 “복음 세우기 운동”을 살펴봄으로써 실제적인 활용방안과 대안을 구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다.

V 장 결론에서는 인터뷰 대담의 방식으로 선교적 교회를 위한 교육목회를 진단하고 평가한다. 필자, 당회원, 성도들의 평가와 연구과제들을 정리하였다.

선교적 교회론을 설명할 때 교회에 대한 이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다. 선교는 교회의 기능이 아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를 말한다. 그동안 교회는 선교를 교회의 본질로서 이해하기보다 교회의 여러 기능 중 하나로서 취급해 왔다.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에 있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 사항이었다. 그러나 선교는 교회의 기능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로서 있어야 하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해야 한다.

선교적 교회는 새로운 교회론이란 주장이기보다 더욱 교회의 갱신과 자기반

성을 통해 제기된 교회론이다. 실제적인 경험과 삶의 현장 속에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선교적 교회를 통해 성경적 기초 위에 교회를 새롭게 이해하고 성경적 교회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해야 한다. 교회의 선교적 사명은 곧 성경적 교회를 세워 나가는 과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적 교회는 외적인 선교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적인 성장과 성숙을 지향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교는 하나님이 주체이고 성령님의 역사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자이다. 선교에 있어서 잘못된 이해는 교회가 선교의 주체인 것처럼 인식되어온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선교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를 움직이게 역사하는 분도 철저히 성령 하나님을 강조한다.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되고 통합적이며 균형 잡힌 선교 신학을 지향하는 것은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교회는 그동안 수 없는 분열과 싸움으로 인해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큰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교회는 선교적 사명의 완성을 위해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고 균형 잡힌 신학을 통해 복음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교회에 대한 이해에 따라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달라지고,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 선교는 교회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

선교적 교회론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발견하고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점이다. 교회의 본질적 위치에 있는 선교가 교회의 변방에 놓일 수 없다. 북미에서의 교회 상황들 속에서 GOCN은 자성적 목소리를 내었다. 기독교 세계에 속한 교회들이 가진 잘못된 방식인 끌어 모으기 식, 이원론적,

계층적인 결합에 대한 반성이었다. 교회의 선교적 본질은 잃어버리고 양적 성장과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에 대한 반성이었다. 전통적인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변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매너리즘에 빠진 서구 교회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길은 단순히 몇 가지 방법론이나 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되지 않고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었다.

교회는 선교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러한 선교의 위치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교인들은 신앙과 삶이 분리된 이원론적인 삶을 살게 된다. 교회는 지역 사회와 분리되어 세상과 전혀 다른 인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선교적 교회는 단지 몇 개의 선교 프로그램이나 선교 활동을 늘리거나 바꾸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회복하고 거기서부터 교회의 모든 사역이 파생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바른 인식과 사고의 전환을 일으키는 일이 필요하다. 성도들의 삶 전체가 선교적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그 핵심은 교회는 하나의 장소이기보다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모이고 흩어지는 존재로서 스스로 정체성을 세울 때 비로소 교회의 본질인 선교적 교회에 대해 바른 인식을 할 수 있다. 선교적 교회는 목회자 혼자 목회는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필자를 비롯하여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함께 하는 훈련이 다소 부족하였다. 그래서 크고 작은 갈등들이 존재하곤 하였다. 그런데 본 논문을 통하여 목회자들이 공동체와 조직을 이끌어 가는 법, 평신도 중심으로 함께 사역을 할 때 교회의 활발한 에너지가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선교적 교회론의 강조점은 성도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론을 따라 세상의 문화를 이끌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려면 그 일을 감당할 가장 주된 역할이 성도들이다. 선교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선교사가 하는 사역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많은 성도들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 보다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사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평신도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 목회 생태계도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 하는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선교적 교회를 위한 교육 목회가 필요하며 그 중심은 평신도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잠자고 있는 평신도를 깨워 함께 연합하고 다양한 목회의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일은 정말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교적 교회의 핵심가치는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이다. 좁은 의미에서는 지역 교회로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다른 문화권 선교지와 함께하는 교회를 지향하는 모습이다. 이를 위해 전 교인이 함께 선교를 인식하고 삶의 방향을 세우는 교회이다. 선교적 교회의 가치는 교회를 회복시키고 본질적 사명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의 시대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변화가 많고 불확실성 속에서 직관에 따라 움직이고 다양함 속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오늘의 시대이다. 지식과 전문성이 주목을 받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다.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의 리더십 속에서 자신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새로운 도전 앞에 힘과 용기를 갈망하는 오늘의 시대이다. 선교적 교회의 목회는 오늘의 성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할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신앙적 도전으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예배와 모임은 치유와 회복, 그리고 비전이 있어야 한다.

교회는 언제나 시대와 흐름을 따라 변화를 추구하며 성장해왔다. 만약 변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흔적이 사라질 줄 모른다. 오랫동안 굳어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려면 스트레칭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렇지 않다면 운동을 영영 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한국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지향해야 한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로 체질이 개선되어야 한다. 선교적 교회의 중심은 평신도의 헌신과 리더십에 달려있다. 목회자 중심교회에서 성도 중심교회로 체질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교회론과 교육목회가 필수적인 요인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선교적 교회론에 있어서 지역교회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 교회는 지역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 중심이다.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을 살피고 함께 협력하며 성장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과 같이 본 논문에서 소개한 “복음 세우기 운동”을 통한 다양한 목회 생태계의 회복의 관한 연구는 선교적 교회로의 갱신이 필요한 교회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제언으로 논문을 마무리 한다.

첫째, 지역교회는 각각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특성을 잘 파악하고 상황과 환경에 맞게 갱신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급진적인 개혁은 오히려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하여 교회의 전통과 특징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웃 교회에서 “예수사랑 큰 잔치”를 할 때 세광교회는 그 교회의 슬로건을 이어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재 조정하여 “복음 세우기 운동”을 실천했다. 이와 같이 교회는 변화에 바라보며 목회현장을 이해하고 파악하며 거기에 맞게 실천해야 한다.

둘째, 교회 전체가 함께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몇 사람만 움직이는 프로그램 100개 보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되어 다 함께 연합하는 프로그램 1개가 더욱 교회를 새롭게 만들며 연합하게 한다.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앞서서 참여하는 훈련과 헌신된 소수의 핵심 봉사자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것을 적절히 걷어내는 것이 어려운 과제이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전통과 애씀을 기억하며 격려해 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자리는 내주어야 한다.

셋째,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함께 복음을 세워가는 일이 중요하다. 선교지나 협력하는 교회를 선정하는 시작부터 성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를 위하여 교회는 큰 방향성 중심으로 기획을 하며 그 내용을 성도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모아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교회 전체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풍성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 외국어 서적

Jurgen Moltmann, *A Theology of Hope*. New York: Harper & Row, 1967.

## 번역서적

A. M Hunter. *설교의 원형과 그 발전*. 채 위 역. 서울: 한국그리스도교문화원, 1992.

Alister E. McGrath. *역사 속의 신학*. 김홍기 외 3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Charles Van Engen.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임윤택 역. 서울: 두란노, 1994.

Christopher J. H. *하나님의 선교*. 정옥배, 한화룡 역. 서울: IVP, 2010.

Darell. L. Guder. *선교적 교회론*. 정승현 역. 인천: 주안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13.

David J. Bosch. *변화하고 있는 선교*. 김병길, 장훈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David J. Bosch. *변화하는 선교*. 김만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7.

Edward R. Dayton, David A. Fraser. *세계선교의 이론과 전략*. 곽선희 외 2인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Georg f. Vicedom. *하나님의 선교*. 박근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J. Dunn, *신약성서의 통일성과 다양성*, 김득중, 이광훈 역. 서울: 솔로몬, 1991.

John Piper, *하나님의 선교를 열망하라*, 이선숙 역. 서울: 좋은씨앗, 2013.

K. S. Latourette, *기독교의 역사*, 허호익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4.

- Leonard Sweet, *관계의 영성*, 윤종석 역. 서울: IVP, 2007.
- Leonard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 Leonard Sweet, *모던시대의 교회는 가라*, 김영래 역. 서울: 좋은씨앗, 2004.
- Leonard Sweet, *미래 크리스천*, 김영래 역. 서울: 좋은 씨앗, 2007.
- Leonard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역. 서울: 좋은 씨앗, 2002.
- Leonard Sweet, *태블릿에서 테이블로*, 장택수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15.
- Lesslie Newbigin, *서구 기독교의 위기*, 서정운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7.
- Lesslie Newbigin, *선교신학개요*, 최성일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5.
- Leroy. Eims, *제자삼는 사역의 기술*, 네비게이토번역부 역. 서울: 네비게이토출판사, 2009.
- Maria Harris, *교육목회 커리큘럼*, 고용수 역. 서울: 장로교출판사, 1997.
- Neil Cole, *교회3.0*, 안정임 역. 서울: 스텝스톤, 2012.
- R. Paul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홍병룡 역. 서울: IVP, 2015.
- Rick Warren, *하나님의 인생레슨* 김창동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8.
- Timothy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오종향 역. 서울: 두란노서원, 2016.
- 세계교회협의회, *통전적 선교를 위한 신학과 실천*, 김동선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잉글랜드성공회 선교와 사회문제 위원회, *선교형 교회*, 브랜든 선교 연구소 역. 서울: 비아, 2016.
- 한국어서적**
- 김영래, *기독교교육과 미래세대*. 서울: 도서출판 땅에쓰신글씨, 2007.

- 김은수, *현대 선교의 흐름과 주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김한호, *디아코니아와 예배*. 경기: 서울장신대 디아코니아연구소, 2016.
- 김홍천, *선교와 교회 2020*. 서울: 지구촌선교연구원, 2020.
- 문상기, *케리그마와 현대설교*.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6.
- 박봉수, *교육목회의 이해*.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2008.
- 변창욱,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새 마음*. 서울: 미션 아카데미, 2007.
- 안택윤, *삼위일체조직신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2.
- 예장총회교육부, *하나님나라: 부르심과 응답 교육과정지침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서울: 연세대출판부, 1995.
- 이상훈, *Re Form Church*.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18.
- 정성진, *성공하는 교회들의 8가지 정석*. 서울: 국민북스, 2019.
- 조병호, *제사장나라 하나님나라*. 서울: 통독원 2016.
- 한국선교신학회, *선교학 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 한국일, *선교적 교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사, 201.
- 한국일, *세계를 품는 교회*. 서울: 장로신학대학교 출판부, 2010.
- 황규정 외 2명, *교육학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2007)

#### 잡지, 기타 간행물

- 김광진, “존 맥스웰의 리더십, 성경적으로 적용하기.” *목회와 신학*(2005), 145.
- 김영동, *2011년 종교개혁기념 학술강좌, 9*.
- 박봉수, “교육목회란 무엇인가?.” *교육목회 가을호*(1999), 24.
- 송기태,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 기독교연합신문. 2014.

주승주, “레이투르기아와 소망.” *교육목회 겨울호*(1999), 118-19.

황홍렬, “지역사회봉사를 통한 선교, 선교와 디아코니아.” *선교신학 5호*(2002), 19.

## VITA

### PERSONAL DATA

Full Name: Hyunjoon Kim

Place and Date of Birth: Seoul, South Korea, June 5, 1984

Parent's Names: Gwanggi Kim and Choonrye Park

###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b>Kyeongsin High School</b> 74, Hyehwa-ro,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Diploma	Feb 14, 2003
Collegiate: <b>Korean Christian University</b> 47, Kkachisan-ro 24-gil, Gangseo-gu, Seoul, Republic of Korea	B.A	Feb 19, 2010
Graduate: <b>Seoul Jangsi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b> 145, Gyeongang-ro, Gwangju-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M.div	Feb 14, 2014
Graduate: <b>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b> 251, Gwangjang-ro 5-gil, Gwangjin-gu, Seoul, , Republic of Korea	M.A in Ch. Ed	Feb 19, 2016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Hyunjoon Kim

Name typed

February 26, 2021

Date